



제3373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4 **중에 밀린 韓석화... 스페셜티로 성장엔진 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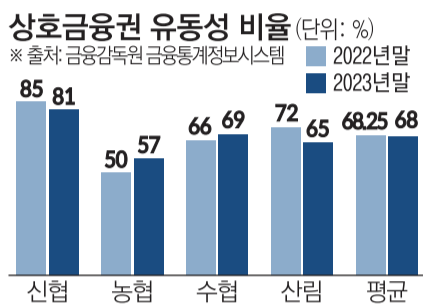
10 **엔화, 당국 개입에도 안전자산 지위 '흔들'**

코스피(30일 전주대비)	코스닥
▲ 2692.06 (+4.62P)	▼ 868.93 (-0.79P)
▲ 환율(달러당 원화)	▼ 금리(국고채 3년물)
▲ 1382.00 (+5.00원)	▼ 3.529% (-0.023%p)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 '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2142개 조합 유동성 비율 68%
농협 단위조합 38% '50% 이하'
저축銀·카드사 대비 현저히 낮아
부동산 침체에 기업 연체율 상승
당국, 채무조정 등 관리·감독 강화



수두룩했다. 농협은 1055곳 조합 중 276곳이 50%를 밑돌았다. 전체 조합의 38%에 달한다. 신협 42곳(전체 859곳) △산림 29곳(139곳) △수협 12곳(89곳) 등이었다. 문제가 터져 인출 요구가 일시에 몰리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총동원해도 원금의 절반도 못 돌려준다는 얘기가. 각 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금리 인상을 맞아 '안전한'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자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유동성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금리가 뛰면서 조달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상호금융도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 수준인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부동산PF 부실이 영세한 조합에서 터질 경우가 문제다. 소형 조합의 경우 예금 이탈 동요만 있어도 유동성 위기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상호금융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작했다. 유동성 관리 능력과 함께 부동산 부실 우려 여신을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진전됐고,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우려했다.

정성원 기자 jsw@

尹·李 회담 첫 성과...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하기로 했다. 기본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을 반영해 1년 이내로 했다. 여기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할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의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

오늘 본회의서 처리키로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권 삭제
채상병 특검법 등 추후 협의 전망
대통령실 "국정현안 협치 지속 기대"

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있어 민주당이 통 큰 양보를 해줬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위한 대화도 할 것이고, 김진표 의장님 설득 작업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게 우리 당의 원칙"이라며 "이견이 있거나(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국정 현안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부활한 명동거리 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동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1.8%를 기록했다. 2020년 2분기 0.0%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이었던 2021년 4분기에는 공실률이 50.3%까지 치솟았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한국은 지금 '팝업스토어 전성시대'다. 성수·강남·홍대 등 소위 핫플레이스(명소)라 불리는 거리 일대는 다양한 팝업스토어가 열리며 그 유행을 실감케 하고 있다.

팝업스토어(Pop-up Store·팝업)는 짧은 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임시 매장을 뜻한다. 과거에는 주로 패션·화장품 기업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홍보해 매출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곤 했으나, 최근엔 체험형이나 전시 공간으로 진화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팝업이 성행한 만큼 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는 기업들이 오프라인 고객 경험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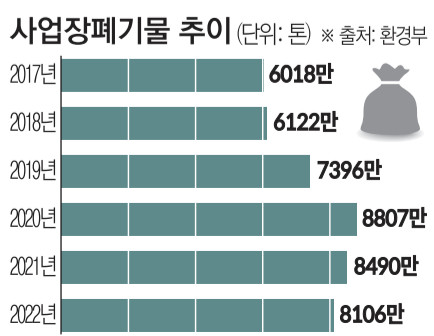
흥행만큼 쌓이는 폐기물... 두 얼굴의 팝업스토어

비자 만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다현대 서울'은 최근 3년 사이에 팝업을 4배 이상 늘렸다. 2021년 2월 문을 연 이후 첫해에 100여 건에 불과했던 팝업은 2022년 210여 건, 지난해 440여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2월에만 77건이 추가로 진행됐다. 1년 동안 하루에 1건 이상의 새로운 팝업이 열리는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팝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브랜드를 알릴 수

초기부담 적고 매출 증대 효과 불구
매장 철거 후 자재 재활용 어려워
사업장 폐기물 배출 6년새 35% 증가



있을 뿐 아니라 매출 증가로도 이어져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서치 플랫폼 캐릿에서 Z세대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97.2%가 팝업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한 이후 81.6%가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인식했고, 52.7%는 해당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와 달리 팝업 이후 철거로 인해 쏟아지는 수십 톤의 폐기물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

부의 전국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 중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8106만 톤으로, 2017년 6018만 톤 대비 35%(2088만 톤) 증가했다. 더욱이 이중 팝업스토어 폐기물은 대부분 팝업만을 위해 설계돼 재활용도 쉽지 않다.

허혜운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팝업스토어 특성상 주기가 짧다 보니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형태로 부스가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폐기물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에 대한 지침이나 제도가 전무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결혼은 선택, 자녀 없어도 돼”... 더 돌아선 청소년 가치관

여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후 청소년의 일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13~24세) 비율은 2020년 조사(39.1%) 대비 소폭 낮아진 38.5% 수준으로 나타났다.

6년 전 조사 때 51%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12.5%포인트(p)나 하락한 것으로, 결혼에 대한 달라진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60.3%)와 유사한 60.1%를 기록했다.

'결혼 필수' 응답 6년새 12.5%p↓
5명 중 3명 "아이 가질 필요 없어"
부모와 교감하는 비율·시간 늘고
우리 사회 대한 긍정적 인식 상승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 경제적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은 40.1%로 이전 조사(32.2%)보다 7.9%p 증가했고,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5.4%로 7.0%p 감소했다.

부모와 주 4~6회 교감하는 청소년 비율은 전 항목에서 증가했다. 특히 부모와 2시간 이상 대화한 비율은 직전 조

사 대비 아버지(5.5%→14.2%) 8.7%p, 어머니(15.5%→33.5%) 18.0%p 등 모두 증가했다.

한편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과 인권 존중, 다양성 인정에 관한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각각 7.1%p, 4.5%p, 5.0%p 증가했다.

청소년이 가장 염려하는 사회문제로는 범죄와 폭력이 27.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1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 적성(17.1%), 장애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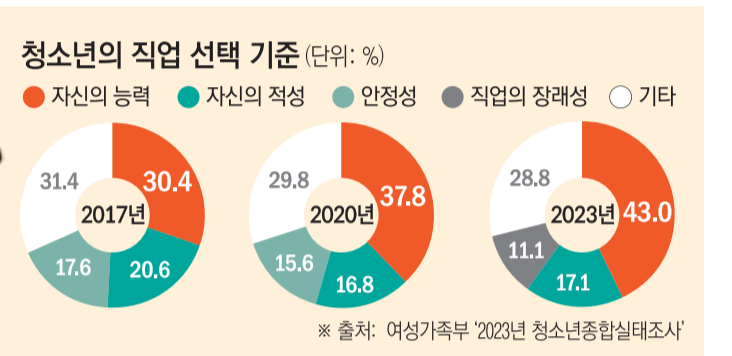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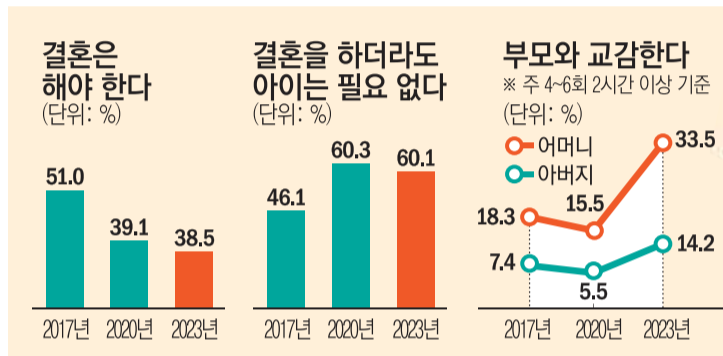
로 직전(39.9%) 대비 9.6%p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삶의 질은 대체로 상승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6개 항목 중 '전반적인 생활' 항목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29.6%)이 직전 조사(13.4%) 대비 16.2%p 상승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삶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송석주 기자 ssp@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방 거주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3%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전날까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 2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63.2%인 223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現고2부터 지방학생 의대진학길 더 넓어진다

파악됐다고 1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전형으로는 2025학년도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선발 규모가 2.1배 늘

2026학년도에 2배 이상 늘려
63% 지역인재 전형 선발키로

어났다. 정시 전형 선발은 같은 기간 221명에서 479명으로 2.2배 증가한다.

2026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대학별로 보면, 전남대는 전체 선발인원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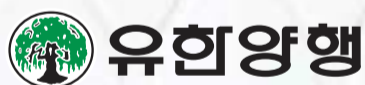
명 중 160명(80.0%), 원광대 150명 중 120명(80.0%), 부산대 200명 중 151명(75.5%), 경상국립대 200명 중 147명(73.5%), 조선대 150명 중 105명(70.0%), 동아대 100명 중 70명(70.0%) 순으로 비중이 컸다.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충남대(73.6%) △경상국립대(73.5%)

△조신대(70.0%) 순으로, 수시에서는 전남대(89.0%), 부산대(87.5%), 원광대(84.5%), 동아대(83.3%), 순천향대(82.8%) 순으로 높았다.

비수도권 의대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규모가 확대되면서 의대합격선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임성호 종로학원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2026학년도에 비해 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더 유리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현경 기자 son89@



“ 가장 소중한 분께 ” 건강을 선물하세요



대한민국 NO.1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당큐락

국내 최초 · 국내 유일 혈당 유산균 (24년 3월 기준)



대행큐~
당큐락!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주)유한양행 | 연구개발: (주)에이투젠 | 제조원: 코스맥스엔비티(주)
*CJ온스타일 (23.01-12) 혈당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등, NS홈쇼핑 (23.01-06) NS 혈당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1위



Kimsoo-hyun
김소현
당큐락 전속모델

MZ 발길 닿는 곳마다 ‘팝업 천국’... 한편엔 ‘쓰레기 지옥’

가보니 성수동 연무장길

화장품부터 식음료·완구류까지 신제품 알리는 팝업스토어 즐비 입장 대기행렬 수십미터 이어져 한쪽선 짓고, 반대쪽에선 부수고 거리 곳곳에 건축자재와 폐기물 담배꽂초 등 생활쓰레기도 수북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서 운영 중인 하이트진로 '진로골드 판타지아' 팝업스토어가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왼쪽 사진). 폐기물 철거 트럭이 성수동 골목에 세워져 있다.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를 나와 '팝업스토어(팝업)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 연무장길로 들어서자마자, 한 건물 앞의 긴 대기 줄이 눈에 띄었다. 이 줄의 정체는 화장품 브랜드 롬앤이 운영 중인 '2024 서울 주시 올림픽' 팝업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이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이 팝업은 롬앤 립글로스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팝업을 관람하려는 MZ세대들로 붐비 성수동은 활기가 넘쳤다. 연무장길 팝업은 한 집 건너 한 집 에 자리할 정도로 빽빽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롬앤 팝업을 지나 몇 걸음 걷자, 이번엔 하이트진로 '진로골드 판타지아' 팝업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이트진로가 최

근 새로 선보인 알코올 도수 15.5도의 저도주 '진로골드' 출시를 기념해 선보인 팝업이다. 거대한 공간을 진로골드 소주를 테마로 화려하게 꾸며놨다, 말 그대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팝업 인근은 신제품을 체험해 보려는 고객들로 문전성시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성수동 거리를 1시간여 둘러보니, 화장품 브랜드 '입생로랑', 농심 '짜파게티', 빙그레 '투게더', 완구브랜드 '레고'까지 다양한 팝업을 운영 중이었다. 대부분 입장하려는 고객이 많아 대기 줄이 길게 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을 선 고객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활기찬 성수동 거리 곳곳에서는 새 팝업을 준비 중인 공사 현장도 심심찮게 찾

아볼 수 있었다. 이때문에 거리 한복판에 다소 위협해 보이는 건축 자재가 쌓인 광경도 흔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는 팝업 대관을 안내하는 매물 소개 전단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빈 상가 곳곳에는 팝업을 대관한다는 홍보 현수막도 많았다. 연무장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60~70평 규모 팝업을 1주일간 운영

시 대관 비용은 44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팝업 못지않게 연무장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풍경은 '폐기물 철거 트럭'이었다. 팝업 설치 후 발생한 쓰레기(산업폐기물)를 가득 실은 트럭은 성수동 골목을 바삐 달렸다. 업계에 따르면 팝업 1곳이 철수할 때마다 평균 1톤(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팝업이 운영된 매장에서는 수십 톤의 폐기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팝업 방문 인파가 넘치는 만큼 거리에는 생활쓰레기가 쌓인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쓰레기 담배꽂초 무단투기 금지' 같은 안내 팻말도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나자,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연무장길 주변을 중심으로 '365 청결기동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한 팝업앞에서 만난 이정아(가명·34) 씨는 "성수동 곳곳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팝업 자체가 단기간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공사하는 건물도 많아 동네가 어수선한 것 같다"고 했다. 성수동에 거주 중인 김원배(76) 씨는 "하루 종일 짓고 부수니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 된 것 같다"며 "열심히 지어내고 며칠 후에 부숴버리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지영 기자 kiy42@

“폐기물 수십톤, 친환경시대 역행 정부·지자체 관련 규제 서둘러야”

전문가 제언

“기업도 재활용 자재 사용을”

팝업스토어(팝업)의 취지와 성과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넘쳐나는 폐기물이다. 1~3주가량 한시적으로 열리는 팝업의 특성상 일회용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사실상 매출을 목표로 하면서 오프라인 고객 경험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팝업의 취지는 긍정적이거나 쏟아지는 폐기물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들 역시 팝업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시적인 특성상 소비자의 조바심을 자극해 (팝업스토어에) 찾아오게끔 한다”면서 “길어봤자 3주 정도로 열리는 기간이 한정돼 소비자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희소

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하게 열리는 팝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폐기물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환경 보호적 관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며 “팝업 자체가 쓰레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역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허혜운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팝업스토어 매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행사 종료 후 매장을 철수할 때마다 발생하는 폐기물도 최대 수십 톤에 달한다”며 “폐기하는 자원을 자체도 재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 규제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사용된 자원이 이후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해야 하고, 소재도 '설치에 몇 %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기업 입장에서 팝업을 단순히 홍보나 마케팅 목적뿐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허 활동가는 “최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팝업 이후 자원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기획 초기부터 폐기물이 최소한으로 나오게끔 친환경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김지영 기자 kiy42@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주)글로벌리얼리서치

<고기능·고성능 제품>

중 화학굴기에 밀린 K석화...“스페셜티로 성장엔진 재가동”

중 공격적 증설... 범용제품 장악
에틸렌 年 5174만톤 생산 1위
중 자급률 높아져 韓 수출 급감
중국산 공급 과잉·탈탄소 부담
“기술력 확보·신사업 발굴 온힘”

“10년 전 한국 기업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라스2024’에 참가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꾸린 부스를 둘러본 뒤 이렇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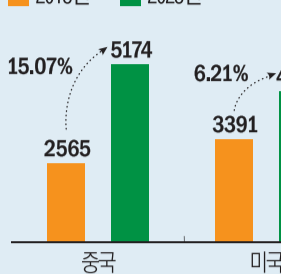
중국 업체들은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부터 세제, 가전제품 등을 줄지어 늘어놨다. 한국 기업들이 고기능·고성능(스페셜티) 제품을 테마별로 전시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생활용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주로 범용 제품에 속한다. 이 관계자는 “한때 한국이 장악했던 범용 시장을 중국이 대체한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1990년대 중반 서유럽과 일본의 사업재편에 따른 범용 석



주요국 에틸렌 생산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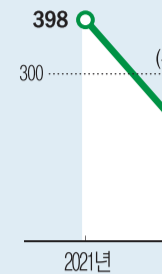
(단위: 만톤) 2018년 2023년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에틸렌 스프레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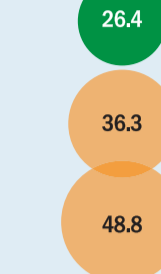
(단위: 톤당 달러)



※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석유화학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유화학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2005년 이후 중동과 미국의 대규모 증설 기조에도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기대 성장 가도를 달렸다.

중국 정부는 2010년 후반부터 ‘화학굴기’를 내걸고 자국 내 에틸렌 등 기초유분과 중간원료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증설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5174만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 시장에 의존해 성장했던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전체 석유화학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010년 48.8%에서 지난해 36.3%로 감소했다. 2025년이면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100%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값싼 중국산 범용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문제다.

석유화학 기업의 수익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2021년 톤당 398달러에서 지난해 150달러까지 추락했다. 통상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3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특히 고부가합성수지(ABS)나 폴리염화비닐(PVC) 등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천연가스

전력 등 원료가격 하락에 따라 암모니아와 염소 계열 제품의 전반적 판매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글로벌 정유사들이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탈석유’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에스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코와 손잡고 9조 원가량을 투입해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코는 지난달 22일 중국 석유화학 업체 흥리 석유화학 지분 10%를 확보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합작법인(JV)을 설립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영

토를 넓혀가고 있다.

전유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현 상황에서 아랍코 협력업체들의 잠재적 추가 증설 가능성, 원가 경쟁 측면에서 또 한 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이 집중하는 범용 제품 대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스페셜티 제품을 비롯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페셜티 제품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는 일은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상하이=김민서 기자 viajeorlune@

韓 석유화학 명운 좌우할 ‘3가지 시나리오’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2010년 후반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자국 내 석유화학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대규모 증설에 나섰다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석유화학의 중국 수출 비중은 2017년 50.8%에서 2030년에는 26.4%까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자국 내 자급률 100%를 넘긴 중국이 수출에 나섰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게 됐다.

중국이 최대 수출국에서 최고의 경쟁 상대가 됐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된다면=1일 한국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에틸렌 수요는 연 1억8117만 톤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3.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올해 에틸렌 수요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3.78% 증가한 1억8802만 톤에 불과하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점진적으로나마 업황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6월 금리 인하 여부와 중국 정부가 펼치는 경기 부양책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전에도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몇 번의 부침을 겪었지만,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스페셜티 시장에 주목하는 것도 위기 극복 전략의 연장선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산업용 고부가 제품들은 당장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긴 업력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10년 전부터 범용 비중을 축소해 일본

1 업황 점진적 반등 조짐 범용 대신 고부가 승부

2 인도 시장, 中 대체 관심 부족한 생산설비가 관건

3 수요감소에 고강도 재편 위기분석·선제대비 필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1990년만 해도 일본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규모였으나, 내수 침체와 역대 증설로 경쟁력이 약화하자 빠르게 범용 제품 생산시설을 집중화하고 전자소재·의료기기 등 스페셜티 투자를 확대했다. 그 결과 일본 석유화학 회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6~8%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시장,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 업계에서는 인도 시장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인도 석유화학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년 내 400조 원까지 커질 시장이지만 석유화학 생산 설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수입량의 30%가 석유화학 중간재다.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인도 수출 비중은 3% 남짓이다. 아직 우리 기업들이 입지를 넓히지 못했다.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아직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정체되면서 인도가 빠르게 추격하는 모양새”라며 “인도가 제2의 중국 시장으로 성장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실적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도 시장에서도 중국 및 인도 내 자국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고, 중국과 달리 ‘소규모’ 사이클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고유가 시절 덩치를 키웠던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위기에 봉착하면서 인수합병(M&A)을 활발히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전기차 시장 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 역시 고강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36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전 세계 에너지 관련 기업은 58개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금융 위기 때 에너지 기업 95개사가 파산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다우케미칼은 2013년 성장 정체에 빠진 기초화학사업군을 부분매각하거나 분사하는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시장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으나 중국의 수요 감소가 실적 부진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세계 3위 화학업체인 네덜란드 라이온델바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2009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보호 신청 이후 직원 3000명 감원, 세계 10여 곳의 생산 설비와 글로벌 지사 및 연구개발센터 20곳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석유화학의 매각,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과거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선례를 상기하고 선제적 위기 분석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viajeorlune@이동욱 기자 toto@

주요 기업별 신사업 내용

※ 출처: 각사



- 3대 신성장동력 (친환경·전지소재·혁신신약) - 2025년까지 10조원 투자	- 수소·배터리소재·리사이클·바이오 - 2030년 매출 7조원 목표	-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 美 조지아주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 연내 완공
---	--	--

배터리소재·친환경 사업으로 돌파구

LG화학, 전지소재·신약 속도 롯데케미칼, 수소·바이오 강화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 확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이겨낼 돌파구로 배터리 소재, 친환경 사업 등 신(新) 성장동력 찾기에 분주하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초소재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 확대에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은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 개발과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친환경 △전지소재 △글로벌 신약을 3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연산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2~3년간 설비투자(CAPEX)에 매년 4조 원 안팎의 투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북미 시장 협력도 강화한다. LG화학은 GM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고 2035년까지 24조7500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과 함께 국내 기업 최초로 바이오 나일론의 원료부터 제품까지 생산한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 매출 7조 원을 목표로 수소,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 및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

지 수소 60만 톤, 2035년까지 수소 180만 톤을 다양한 용도로 공급하고 수소 출하센터, 충전소 등을 포함해 수소사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국산화에 추진한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 5월 대산공장 내 약 2100억 원을 투자, 국내 최초 배터리용 전해액 유기용매 제품인 에틸렌카보네이트(EC)와 디메틸카보네이트(DMC)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이후 14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에틸메틸카보네이트(EMC)와 디에틸카보네이트(DEC)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인 전해액 유기용매의 핵심 소재 4종을 모두 생산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소재 브랜드 ‘에코시드(ECOSEED)’를 출시하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을 확대, 2030년까지 에코시드 10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한화솔루션은 일찌감치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올해 예정된 설비투자 규모는 3조2000억 원으로, 이 중 태양광 부문에만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솔라허브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 솔라허브는 3조2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미국 내 최대 태양광 통합 단지다. 현재 생산 능력이 1.7기가와트(GW)인 조지아주 달턴의 기존 모듈 공장을 5.1GW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동욱 기자 toto@

“예납비만 역대”... 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최대〉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회생과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은 단기 자금 유동성이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경색되는 때가 많아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도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하는 것도 적지 않다.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린 기업이 회생·파산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권 통계 수치로 파악되는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이 실제 위기의 아주 일부분만 드러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계에 처한 회사들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지평도산·구조조정팀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1일 본지에 “돈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는데, 또 돈을 내야 하니 사실상 제도 이용에 장애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에 가장 큰 문턱은 비용”이라면서 “부채나 자산 규모에 따라 법인회생 신청에 드는 돈을 예납해야 하는데, 적으면 몇 천만 원부터 많으면 억대까지 나올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 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 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략 “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이응교 법무법인(유한)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 역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 절차 비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미 상당수 기업들에 들어간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지 오래다.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국민 세금 부담이 큰 공적자금 직접 투입보다는 처분자산이 아직 남아 있는 기업들의 자체 재산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영권 상실 문제 또한 큰 장애 요소다. 권 변호사는 “파산처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실상은 회생 역시 기존 오너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며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주식을 발행해주면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고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통상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 결국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회사 빚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부인권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팔아 처분 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먼저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같은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부인권을 행사하면 이미 처분하거나 변제한 자산이라도 다시 법인 명의로 환수돼 원상회복된다.

이런 위기 때 일부 대표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한 기업의 대표이사는 파산 신청을 하기 6개월 전에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 책임재산을 일탈시켰다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하자 해당 부동산을 파산재단에 환원, 부인권 행사를 면하고 형사고소 등을 피한 사례가 있다.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조기 종결된 이후 대표이사의 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재 실무”라며 “경영위기 속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경우 개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하면 부인권 행사나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함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청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가 잘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하고,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대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인 회생·파산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회생도 파산도 하지 못한 채 기업을 방치하는 일이 생기는 배경이다. 방치된 기업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상법에 따라 ‘기업 해산’ 상태로 간주된다.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때 정정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닌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수원, 부산 등 3곳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 대구 지역에도 추가해 전국 5대 권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결국은 법원 조직 개편과 연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협조가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빅플 기자 pgot@ 김이현 기자 spes@전이현 기자 cahyun@

파산절차 예납비용 (단위: 만원)

(부채총액 동시폐지사건) 예납기준액 불필요(인터넷 공고시)

5억원 미만	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00
100억원 이상	2000

※ 파산절차 예납비용: 공고, 송달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비용 등
※ 출처: 법무법인(유한) 바른

도산법 전문가 4인이 보는 법인 회생·파산

“돈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는데, 또 돈을 내야 하니 사실상 제도 이용에 장애”

권순철 법무법인(유) 지평도산·구조조정 팀장(변호사)

“기업들이 유동성 여력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적기에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이응교 법무법인(유) 바른 자산관리그룹 변호사

“채권 회수되지 않을 때 채무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하고, 자신의 채권을 행사해야”

김시주 법무법인(유) 충청 경영총괄 대표변호사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이나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투지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추위),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246호
13025.11.19 - 2022.11.19
SK증권 본보조사단 심사일 2023-031호
2023.11.19 - 2026.11.19

〈작년 말 17조 1304억원〉

부실채권 92% 늘었지만... 총당금 증가는 13.7%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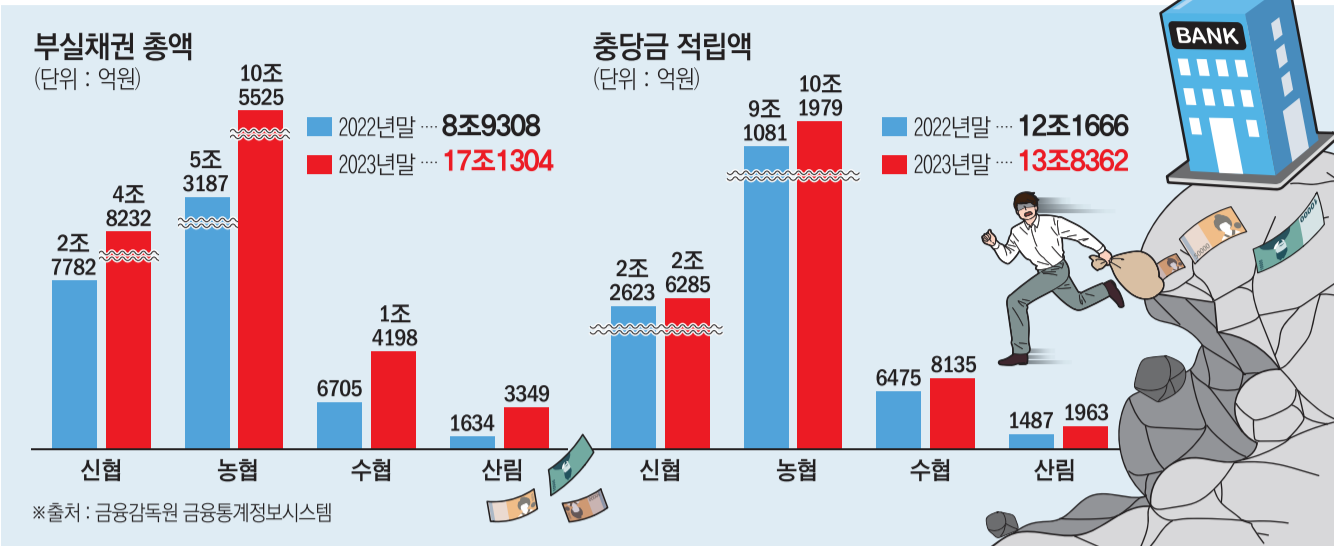
상호금융 '뱅크런' 무방비

부동산PF 시한폭탄에 연체율 ↑ NPL커버리지비율 81.8%로 '뚝' 농협단위조합 부실채권 8.2조 '쑉' 지배구조·내부통제 규율마련 미흡

전국 2100여 개의 상호금융 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대기 중인 데다 수익성은 고꾸라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급격히 오르고 있어서다. 특히 농협단위조합의 경우 부실채권 규모가 1년간 8조2000억 원가량 불어나는 등 신용위험에 경고음이 커진 상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무리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쌓여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탁·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 조합 2142곳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 비율은 평균 81.8%로 전년 대비 55.3%포인트(p) 하락했다.

NPL커버리지비율은 총당금을 부실채



권으로 나눈 값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에서 발생한 예상손실을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다. 100% 이하이면 총당금보다 부실채권이 더 많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더 커질 수 있어 향후 잠재적인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된 것이다.

이들 조합의 부실채권 총액은 17조 13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8%나 급증했다. 반면 총당금은 13조 8362억 원으로 13.7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권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신탁 개별조합의 NPL 커버리지 비율은 54.5%로 전년(81.4%) 대비 26.9%p 하락했다. 타 업권 대비 비교적

높은 총당금을 쌓은 농협도 97.2%를 기록하며 100% 밑으로 떨어졌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각각 57.1%, 58.63%로 NPL 커버리지 비율 100%를 크게 하회했다. 4대 시중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 223.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로 전년 말(1.90%)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중 산림조합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협 3.66% △신탁 3.2% △농협 3.01%를 기록했다. 특히 농협은 금감원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단위 조합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은 17조

1304억 원으로 전년(8조9308억 원) 대비 91.8% 늘어났다. 회수 불가능한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2.97%로 전년보다 1.45%p 올랐다. 수협(4.14%)이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고 신탁(3.63%), 산림조합(3.41%), 농협(2.65%)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문제는 상호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규율체계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재 신탁에만 적용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기준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신탁은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NPL 자회사 설립을 논의한 바 있다. 신탁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율 감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NPL 회사 설립을 계획했다"며 "올해 자체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NPL 자회사 설립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발족된 '비상경영대책위원회' 아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연체 감축을 위한 법률, 감정 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리스크는 부동산 시장 등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 채권과 연체율 추이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위기 속 정부가 상호금융 단속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목표	추진전략	추진기반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現 49.7%) 도매시장 경쟁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 확대 2027년까지 5조원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 APC 취급 물량 확대 2027년까지 50%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전략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전략 ③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전략 ④ 소비자 유통환경 개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유통비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의 의무화한다.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법인 수익을 제한하고, 전자송품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내 법인과 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취소를 법제화한다. 법인 지정 기간인 5~10년이 되면 반드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 내라도 평가가 부진하면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다. 신규 법인 지정도 자율로 이뤄지던 규모를 정부가 시

유통단계 줄이고 법인 경쟁 촉진 부실 도매법인 지정·취소 법제화 온라인 도매 규모 5조원으로 확대

장별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해야 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에 나선다.

도매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전자송품장을 통해 시장에 상품이 반입되기 전 품목과 물량을 확인해 반입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6개 품목별 전자송품장 대상을 올해 16개, 2027년에는 가락시장 전체 193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40% 평균값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상·중·하)에 따른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도입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193개로 늘리고, 판매자 가입 기준인 연간 거래 규모를 50억 원에서 20억 원으

로 하향 조정한다. 거래 부류 간(정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해 문턱을 낮춘다.

산지 유통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 구축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특히 사과와 배는 2030년까지 APC에서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계농도 조절(CA) 시설을 갖춘 저온 저장고를 확충한다.

아울러 독과점 체제인 팔레트와 플라스틱 박스 등 농수산물 물류기기 시장은 이용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의 시장 참여도 유도한다.

이밖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대신 무포장(벌크) 유통을 도입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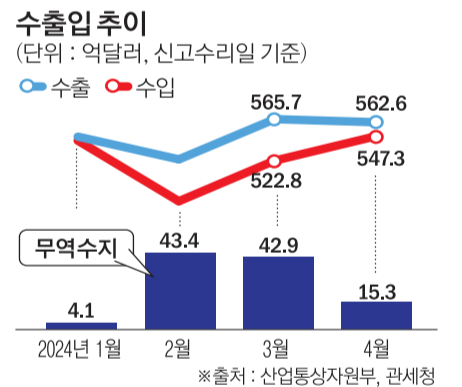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한다"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車 '질주'에 반도체도 호조세 누적 무역흑자 5년만에 최고

(106억달러)

지난달 수출 7개월 연속 증가세 자동차 수출 67.9억달러 '사상 최고' 반도체 99.6억달러로 56% 늘어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100억 달러에 육박했고, 자동차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 역시 14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562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으로, 4월 기준으로는 2022년 57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 수출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4월에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99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1%가 증가했고, 4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반도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6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늘었고, 지난해 11월 65억 3000만 달러 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우리 최대 수출국인 대(對)중국 수출이 9.9%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미국 수출 역시 114억 달러로 24% 늘어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중남미로의 수출은 38.2%가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아세안과 일본 수출도 10.5%, 18.4%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인도와 중동으로의 수출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4월 수입은 547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가 증가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이 125억 달러로 14.6%가 늘어나면서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이에 따른 4월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4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2019년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2분기 전체적으로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작년보다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BUILD UP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시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민심 듣겠다는 尹, 이르면 내주 '민정수석실' 부활



중장 진급 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취 수여식에서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삼정검은 중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연합뉴스

尹, 정부 출범 초기 폐지했다가 총선 패배 후 "설치 필요성 이해"

野, 채상병 특검 등 방탄용 비판 검찰 출신 김주현·이금로 등 거론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이르면 내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 이후 민심과 여론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폐지됐다가 정권 중반 오로비 사건 의혹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중반 신설하는 민심 창구를 통해 민의 수렴 기능을 얼마나 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민정수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직개편은 빠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다. 앞서 윤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

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에 쐬기를 박았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던 윤 대통령이 해당 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건 4·10 총선 패배 등으로 민의 수렴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실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중 정부 때도 폐지→부활= 민정수석실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때도 폐지됐다가 오로비 의혹 사건으로 2년 만인 2000년 1월 부활했다.

오로비 의혹 사건은 한 재벌가 부인이 당시 외화미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남편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은폐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당시 정권은 위기에 빠졌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특검)가

도입됐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던 김대중 정부는 해당 사건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자 결국 민심 정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확대 개편했다.

◇후보에 검찰 출신 하마평=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비슷하게 임기 중반인 정권 출범 2년 만에 들어서게 된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앞으로 민심 관련 정보 수집 기능에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총선과 관련한 급하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야당에선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 등 향후 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응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사실상 방탄용으로 새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후보군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사실상 21대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여야 연금특위서 입장차만 확인 野·시민단체 "개혁안 폄훼 말라" 與 "미래 세대에 폭탄 떠넘기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선호도(56%)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응

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며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시사했다.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

보인사정문화실시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럽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통과가 첩첩산중인 가운데, 여야는 현격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

해 "'샘플링(표본)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편파적이었다', '20대가 적게 들어갔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묻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대표단에서 '타인의 선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신뢰하겠다'는 응답이 91.5%가 나왔다. 효능감이 높고 만족도도 높다는 뜻"이라며 "시민대표단의 결과를 폄훼하거나 달리 해석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 의제속의단에 참여했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정책부장은 "국회나 정부가 왜곡된 의사결정이 아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신연금 분리선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투트랙 방식을 말한다. 앞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

의힘 당선자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 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 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o0907@

친윤 이철규도 원내대표 불출마 가닥

당내 추대 vs 불가 자중지란에 쐬기 당장 출마자 한 명도 없어 '구인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해지자, 당이 '이철규(사진) 추대론'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졌다. 여기에 이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판세는 격랑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인난에 빠진 당은 당초 이달 3일 진행

하려던 원내대표 선거를 일주일가량 늦추기로 연기했다. 유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4월 30일)까지 아무도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출마 선언 등을 통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없다.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진의원들은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꼽히는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28일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 외 후보로 거론된 김태호·박대출·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 등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작용으로 '이철규 대세론'이 힘을 받았다. 단독 출마 및 추대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1일 이 의원이 입장을 바꿔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이 의원 추대론과 불가론이 여전히 충돌하는 상황이다. 핵심 친윤이

자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 다시 지도부로 나서는 데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나와 "이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과 경선하게 되면 친윤계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출마를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의원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라 상보다는 별을 받아야 한

다"며 "이분이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악역은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백의중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상범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다고 하면 당연히 당과 국가를 위해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맡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도 아직까지 결정을 다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다"며 "다른 3선, 4선의원들이 현재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최상목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

물가·비상경제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했다”며 “4월 수출은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분기에도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내달까지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기존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게임사 복미·유럽 진출 컨설팅도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경제 회복”

강조했다.

최근 3%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주력한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

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겠다”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중세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계획과 관련해선 “글로벌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사와 협력해 복미·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아랍어 번역 등 컨설팅을 제공할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부산서 맛보는 사우디 커피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2024 월드오브커피 &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에서 관람객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커피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늘린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회복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제역동성·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기회 격차 확대,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 등이 사회이동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등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해 수요 측면에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경단년 재취업 세제혜택도 ‘쑥’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 구축 취업 때까지 고용서비스 지원

신 규제개혁·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규모화) 등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구직단념자)을 위한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국가장학금(대학)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정보·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매칭·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니트 발굴·예방을 꾀하는데 목적을 둔다.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은 올해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0개)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만~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추가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촉진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 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의 세제지원(통합고용세액공제) 재취업 업종제한

도 폐지한다. 예를 들어 출산 전 이복회사에서 근무한 여성이 출산 후 다른 업종인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도 상반기 중 신설한다.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고등학생만 적용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학기당 200만 원)’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해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중개·신택·일임형)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손익에 대해서만 과세)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안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10년 이상)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한도 1억 원)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회복진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60조 육박

여행·식품 등 거래액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60조에 육박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료품 등 4개 상품군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1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9조6768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7%(5조7535억 원) 늘었다.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452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1%(1조7129억 원)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6조5784억 원, 23.9%), 음·식료품(8조2788억 원, 15.8%), 농축수산물(3조3211억 원, 26.8%) 등에서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에

서 2.6%를 차지하는 가구(1조5219억 원, 13.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가구 등 4개 상품군의 거래액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총계로 보면 작년 4분기(61조7136억 원)가 가장 높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여행,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가구 상품군 거래액이 역대 1위”라고 말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4조3606억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8%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가방(-4.7%) 등에서 감소했지만 음·식료품(19.5%), 여행 및 교통서비스(24.3%), 농축수산물(30.0%) 등에서 증가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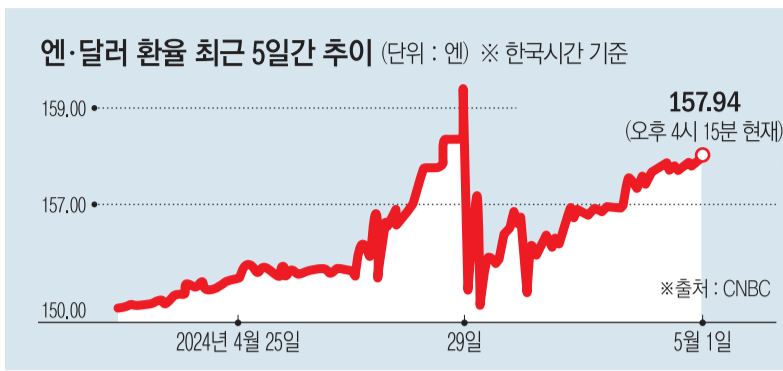
당국 개입에도 다시 약세... 엔화, 안전자산 지위 흔들

엔·달러 환율 롤러코스터 변동 달러 강세로 엔화 가치 떨어져 日정부 48조원 쏟아도 효과 미미 “엔저, 원화·위안화에도 악영향”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출렁이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1일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뉴욕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 후반대에서 움직였다. 이번 주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확실시됐지만,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롤러코스터처럼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오전 한때 34년 만에 처음으로 160엔대를 돌파하고 나서 오후 갑자기 154엔 선으로



떨어졌다. 한때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통했던 엔화 가치가 몇 분 새 3%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엔화약세에 급제동이 걸리자 시장에서는 당국 개입 효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은행(BOJ)의 당좌예금 잔고를 바탕으로 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 5조5000억 엔(약 48조 원)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일본 재무성이나 일본은행 모두 개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개입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전날 1분기 고용 비용 지수(ECI)가 전분기 대비 1.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0.9%)는 물론 시장 전망치(1.0%)를 웃도는 상승 폭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인 하개시 시점은 더 멀어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엔저가 이어지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

이 된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6일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에서는 엔저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올여름 이후에나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블룸버그는 “가장 지루한 통화 중 하나였던 엔화가 전 세계 주요국과의 금리 차 확대 때문에 투기성 통화로 변모하고 있다”며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국이 반복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넘어 앞으로 변동성이 더 크고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저 효과를 누리던 일본 기업들도 이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쿠라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엔저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메이지야사다종합연구소는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오르면 일본 수입물가가 13.5%나 치솟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이어서 수입물가 상승률이 8.7%를 기록해 올해 10월 이후에야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엔화약세는 부담이다. 37년 경력의 리지브드벨로감마자산운용 매크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저는 한국과 같은 일본의 경쟁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또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중 노동절 연휴 시작 중국에서 첫새간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1일 베이징의 한 기차역 밖에서 관광객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노동절은 춘제(설날)와 국경절 다음으로 큰 명절이다. 특히 이번 연휴 소비지출 동향은 중국 경제회복을 가능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교통부는 연휴 기간 지난해보다 162% 급증한 2억700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테슬라에 난데없이 분 감원 칼바람

슈퍼차저 사업부 500명 전원 해고 업계 당혹... NACS 미래 불투명

테슬라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전기차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 부문에서 인력을 대거 해고하자 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직원 서한을 통해 급속충전소인 슈퍼차저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를 폐쇄하고 해당 부서 직원 약 500명을 전원 해고한다고 밝혔다. 또 슈퍼차저 그룹 수장인 레베카 티누치와 신제품 책임자 대니얼 호도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알렸다.

전날 중국에서의 자율주행 전개기대로 15% 이상 폭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대규모 감원 소식에 이날 5% 넘게 반락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어안이 병병한 상황이다. 슈퍼차저에 적용된 충전 규격

인 NACS가 북미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 CEO가 돌연 사업을 엮어버리면서 NACS 미래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포드 대변인은 “우리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따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2년 첫 번째 세단인 모델S를 출시했을 때만 해도 거의 없었던 급속충전소는 이제 미국 전역에 2600개 넘게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유일한 충전소로 남아 있다.

테슬라 사업에 동참하던 관련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테슬라용 충전기 설치를 담당하던 볼렛EV차징솔루션의 앤드레스 핀터 CEO는 “이날까지도 테슬라는 우리가 다른 주로 확장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도록 추진했다”며 “이번 결정은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올인하던 상황에서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사무실 건물에 몰아친 ‘대출 디폴트’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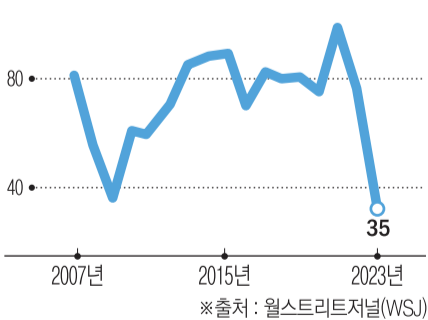
53조원 압류 등 재정난 허덕 대출 상환율 35%로 사상 최악

미국의 사무실 건물들이 역사적 수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현재 380억 달러(약 53조 원) 이상의 미국 사무실용 건물이 디폴트, 압류 또는 기타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무실 소유주의 대출 상환 속도도 눈에 띄게 더뎠다. 무디스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MBS)으로 전환된 사무실 대출의 90% 이상은 만기일에 상환됐는데,

미국 사무실 대출 상환율 (단위 : %) ※ 상업용 부동산저당증권(CMBS) 기준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2007년 데이터 집계 이후 최악인 35%로 급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조달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만기가 도래하는 대부분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을 때 이뤄졌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둔화하지 않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

대마저 사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정상적인 사무실 시장이었다면 많은 소유주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공간을 재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소유주가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약속대로 편의 시설을 추가할 자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은행 이스트딜시큐어드의 아담 에드워즈 매니징 디렉터는 “임차인들은 직원들을 사무실로 다시 불러들이고 싶어 해서 소유주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선 기자 hsbyun@

韓 떠난 트위치, 美서 틱톡과 쇼트폼 경쟁

스트리밍 중 바로 쇼트폼으로 게재

아마존닷컴 산하 라이브 스트리밍 사이트인 트위치가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 트위치가 자국에서 틱톡과 쇼트폼(짧은 동영상)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치는 짧은 영상을 제공하는 쇼트폼 플랫폼인 ‘디스커버리 피드’를 새로 출시했다. 미국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현재 트위치 스트리밍은 한 번에 최대 8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출시된 쇼트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 중 일부를 쇼트폼으로 다시 게재할 수 있고 이용자들 역시 영상을 계속 조회할 수 있다. 트위치 대변인은 “디스커버리 피드는

시청자의 시청 기록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개인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치는 틱톡은 수년 동안 서로 상대방의 기능을 가져다 써오며 경쟁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 틱톡은 트위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실시간 구독 옵션을 선보였다.

트위치가 쇼트폼 시장에서 틱톡을 위협할 존재가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틱톡은 미국에서만 월간 사용자 1억7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앱 모니터링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보다 틱톡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

의회에서 통과한 틱톡 금지법도 최종적으로 발효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애입니다 제가 왜 KB GOLD & WISE *the* FIRST를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자산관리, 늘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2년 전, *the FIRST*를 만나고 마침내 해답을 찾았습니다

KB 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제 자산을 위한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해 주고
저와 가족의 라이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덕분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하고 신뢰하는 만큼
저 이영애는 여러분들께도
KB GOLD & WISE *the FIRST*를 추천합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고객

이영애

◆ KB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the FIRST*는 압구정과 반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B GOLD & WISE *the* FIRST 특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세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컨설팅

투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성과관리

부동산

보유 부동산 가치 분석 및
매각 타이밍 컨설팅

신탁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증여신탁, 사후관리

금융자문

인수합병, 금융투자 자문,
가업 자문, 기업체 자문

법률자문

자산관리 업무 전반
법률 서비스 지원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084호(2024.04.26.), 유효기간 2024.04.26.~2024.12.31.까지

HBM3E 선점경쟁... 공급 늘리는 삼성, 수율 높이는 SK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삼성, 엔비디아에 납품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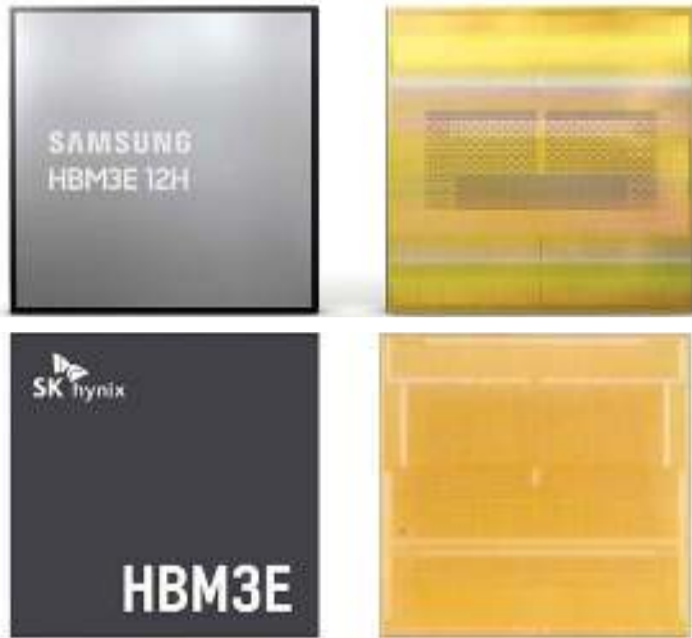
올해 AI칩 공급량 작년의 3배
삼성 측 “고객사와 협의 완료”
연말까지 3개 중 2개 5세대 제품

SK, 4세대 수준 생산 안정화

정상품 생산 비율 획기적 개선
20조 들여 청주AI칩 공장 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사업이 본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D램과 낸드 모두 인공지능(AI) 향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이 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하반기에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가운데, HBM3E(5세대)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HBM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



삼성전자(위 사진)와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사진제공 각사

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9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져 온 적자 행진을 끊어냈다.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탓인데, 공급을 지속 확대해 실적 상승세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HBM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려가고 있다. 올해 물량은 이미 고객사들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며 “2025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HBM3E 생산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8단 제품은 이달 초 이미 양산을 시작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12단 제품 역시 2분기 내 양산할 예정이다.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도 가시권이다. 삼성전자는 연말에는 HBM3E 판매량이 전체 HBM 판매량 가운데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사장은 “HBM3E 사업화는 고객사 타임라인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3E 수율 안정화와 캐파(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5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AI향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늘면서 2조88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

은 수치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HBM3E는) 현재 진척도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 HBM3(4세대 HBM)와 비슷한 수율을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선제 투자로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수율과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전사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대규모 HBM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도 가속화한다.

SK하이닉스는 신규 팹인 충북 청주 M15X를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20조 원을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 어드밴스드패키징 시설은 202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메모리와 일반 D램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클린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M15X는 TSV(실리콘관통전극) 캐파를 확장 중인 M15와 인접해 HBM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해외매출 급성장... B2B사업 효자로

북미 배터리공장 설비 신규 수주

3년간 연 40% ↑... 2배 성장 목표

LG전자의 초대형 냉방기 칠러(Chiller·사진)의 해외 시장 매출이 빠르게 늘며, 기업간거래(B2B) 냉난방공조(HVAC) 사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1일 칠러가 해외 시장에서 최근 3년 간 연평균 4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칠러 사업은 해외에 새롭게 구축되는 배터리 및 소재 업체 공장과 원전 등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북미에 신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신규 수주를 따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장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냉난방공조 시장 규모는 584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8년 610억 달러 규모로 매년 0.8%씩 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중 글로벌 칠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95억 달러 규모로 전체 냉난방공조 시장의 약 15%를 차지한다. 2027년에는 120억 달러 규모로 커져 전체 냉난방공조 시장

의 성장을 크게 뛰어넘는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러는 차갑게 만든 물을 열교환기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다.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공장 등 산업시설에 설치된다. LG전자는 2011년 LS엠트론의 공조사업부를 인수하며 칠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뿐 아니라 중앙공조식 칠러, 원전용 칠러, 빌딩관리솔루션(BMS) 등을 아우르는 풀라인업을 확보하며 국내 최대 종합공조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LG전자 칠러 사업은 국내와 해외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최근 3년간 연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가까운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2030 미래비전' 발표를 통해 회사의 3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B2B 역량 강화를 꼽았다. B2B 사업의 한 축인 가정·상업용 냉난방공조 사업은 2030년까지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LG전자는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중심에서 중동, 유럽, 중남미 등으로 칠러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신설하는 공장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국내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 칠러를 공급했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이승수(왼쪽부터) HD현대오일뱅크 본부장과 존 베너벤테 판 전력청장, 차명근 현대코퍼레이션 석유화학 본부장. 사진제공 HD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초저유황 경유 팜 화력발전소에 3년간 공급

HD현대오일뱅크는 팜 전력청에 석유 제품을 장기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 제품은 초저유황 경유로, 현대코퍼레이션을 통해 3년간 총 720만 배럴을 공급한다.

팜 전력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의 주연료를 벙커씨유에서 특수 초저유황 경유로 전환하고 있다. 벙커씨유 대비 유해 성분이 낮은 특수 초저유황 경유는 까다로운 규격 탓에 소수의 정유사만 생산·공급이 가능하다.

HD현대오일뱅크는 특수 규격을 맞출 수 있는 정제 역량과 하와이 등 미국 도서 지역으로의 제품 수출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승수 HD현대오일뱅크 글로벌사업 본부장은 “그동안 세계 각국에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수출 시장을 더욱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하와이에 석유제품 완제품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를 직접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지역을 미국 서부까지 확장하는 등 수출국을 확대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LG화학, 사우디에 해수담수화 필터 공장 건설

역삼투막 제조시설 현지화 계약 알코라예프와 1200억 공동투자

LG화학이 알코라예프 그룹(Alkhorayef Group)과 손잡고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수처리 사업 확장에 나선다.

LG화학은 사우디 알코라예프 그룹과 RO멤브레인(역삼투막) 제조 시설 현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알코라예프 그룹은 사우디의 수처리·정유·에너지·선박·방산 등 분야의 대표 기업집단이다. 상하수도 개발과 유지보수(O&M) 사업을 운영하는 알코라예프 위터는 사우디 최대의 민영 수처리 기업이다.

LG화학과 알코라예프 그룹은 2026년 RO멤브레인 제조 시설 현지화를 시작한다. 현지 생산시설에는 향후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3억2000만 리얌(약 12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양사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판매·마케팅 활동과 신규 사업 기회 모색 등 향후 추가적인 사업 협력도 확대한다.

양사는 사우디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중동 시장 공략을 가속할 계획이다. 사우디 정부가 공공 수처리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상대적으로 현지 생산 제품이 수주에 유리하다.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 절감은 물론 중동 지역 고객이 제품을 주문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리드타임(lead time)도 줄일 수 있다.

사우디는 해수담수화용 RO멤브레인의 최대 시장으로, 전 세계 시장 수요의 21%를 차지한다.

사우디는 물 공급의 70% 이상을 해수담수화에 의존하고 있고, 네옴시티 건설 등 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위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역삼투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롯데케미칼 “기능성 첨단소재 생산 확대”

삼박LFT, 울촌 산단에 공장 착공 가전·자동차·의료기기 소재 생산

롯데케미칼은 기능성첨단소재 생산회사 삼박엘에프티(삼박LFT)가 전라남도 울촌산업단지에 신규 컴파운드 공장을 착공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오후 진행된 착공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위원장, 노관규 순천시장, 김기홍 광양부시장, 서영배 광양시의장, 송상락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 이사,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한명진 삼박LFT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박LFT는 기존 충남 아산·예산 공장에서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용 복합재(LFT)와 복합수지(TPO) 등 기능성 특수 컴파운드 소재를 지속 생산하고, 신설되는 울촌산단 공장에서는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IT기기, 자동차 및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고부가합성수지(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컴파운드 소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울촌산단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ABS와 PC 등 컴파운드 소재 생산능력 약 50만 톤(t)을 확보하게 되며, 향후 생산 규모를 7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삼박LFT는 2021년 순천시, 광양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울촌1산단 246.871㎡(7만4678평) 부지에 총 4500억 원을 투자해 1단계 기능성 첨단소재 제조 사업을 진행하는 협약을 맺고 이듬해 5월 부지 구매를 완료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훈기 총괄대표는 “울촌공단에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50만 톤의 컴파운드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글로벌 1위 기능성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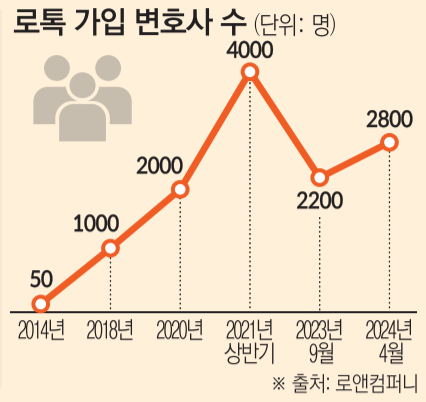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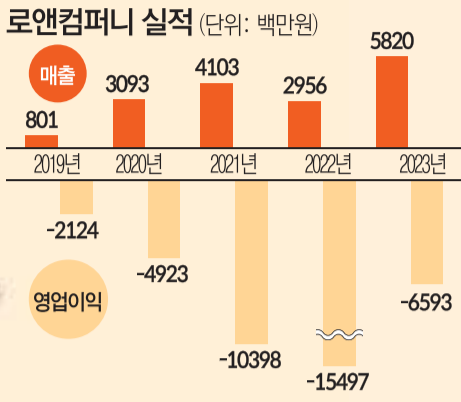
법적 분쟁 끝낸 로톡, 실적 개선... “새 서비스·日 진출”

변협 광고 금지에 실적 급락 징계 취소되면서 성장 발판 작년 매출 58억... 97% 증가 변호사도 2800명까지 회복 AI 기반 B2B 서비스 등 출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일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분지 취재 결과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22년보다 96.9% 성장했다. 영업손실 규모도 155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순손실 규모는 184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축소됐다.

로톡이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듬해 변협은 로톡이 월 50만 원 이내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자 2021년 5월 변호사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로톡



광고를 금지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했다.

이에 로톡 등록 변호사는 급감했으며 로앤컴퍼니 실적도 급락했다. 한때 4000명이 넘었던 로톡 변호사는 2021년 11월 1706명까지 급감했다. 로톡 매출은 2019년 8억 원에서 2020년 31억 원으로 급증하다 2021년 41억 원으로 성장 폭이 정제한 뒤 2022년 30억 원으로 역성장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49억 원에서 104억 원, 155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작년 9월 법무부에서 로톡이 운영 변호사 123인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전부 취소하며 성장 발판 마련 후 변호사 회원 수 및 매출 회복세에 있다. 로톡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00명 수준에서 올해 4월

2800명가량까지 회복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유료 이용 변호사는 최근 3년 내 최저를 기록한 2021년 8월 대비 올해 3월 말 기준 3.4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2023년 9월 법무부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도 법률소비자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월 1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로톡에서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 광고를 집행하는 변호사가 늘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톡은 올해 상반기 신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성장 곡선을 그려갈 계획이다. 로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변호사-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슈퍼로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슈퍼로이어는 △판례·법령·실무정보 ‘리서치’ △소장·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높인다. 또 작년 10월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로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 것도 올해 매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톡은 4월 일본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 참석해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 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갖고 일본 진출도 선언했다. 일본은 전체 변호사의 약 50%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을 만큼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기업 간의 공개적인 토론도 활발히 열려 혁신적인 서비스도 유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는 로앤컴퍼니와 같은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리걸테크 기업이 없다”며 “슈퍼로이어 출시 후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뒤 일본 진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테이블오더’ 스타트업 본격 경쟁 글로벌 사업 가속도·기술 고도화

티오더, 북미·아시아 유통 강화 페이이어, 매장 환경 맞게 모듈화

무인 주문 시스템을 설치하는 점포가 확산하면서 매장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 본격화, 기술 고도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오더는 미국, 싱가포르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한 티오더는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미국,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완료해 북미 시장과 아시아권 태블릿 유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회사는 △외식업 디지털 솔루션 본격 도입 △엔데믹 이후 외식 비중 증가 △직원 동선의 최소화 및 빠른 테이블 회전을 통한 매출 상승 등으로 해외 시장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진출의 선봉장으로는 이우재 부대표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낙점했다. 이 부대표는 삼일회계법인, 신한자산운용 등에서 딜 부문 업무를 담당한 회계전문가다. 티오더는 하반기 중 이 부대표를 미국으로 정식 발령하고, 추후 미국 법인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 총지휘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대표는 태블릿 메뉴판 속 다양한 언어 지원과 해외 시장 선점이 글로벌 진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티오더는 태블릿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평균 1만

대 이상 태블릿을 설치하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5월 한정으로 △테이블오더 3개월 무료 케어 △메뉴 촬영 무료 스타트 케어 △마케팅 케어 △시간 케어 △평생 케어 △540개 메뉴판 조합이 가능한 취향 케어 등을 담은 ‘패밀리 케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매장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이어는 테이블오더를 매장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듈화했다. 결제 방식, 테이블 높이, 콘센트 위치 등에 따라 기동, 커버, 클램프를 레고처럼 선택해 조립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화구가 있는 음식점은 선·후불 고정형 △좁은 닷지 테이블은 선불 탁상형 △호텔, 펜션, 스크린 골프장 등 숙박 업체는 후불 벽걸이형 등 12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커스텀해 도입할 수 있다.

페이이어는 테이블 오더 뿐 아니라 포스, 카드 단말기, 키오스크, 웨이팅 등 매장 관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개발하고 있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 결제 고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식료품, 패션잡화, 코스메틱, 디자이너 브랜드 등 도소매 업종을 위한 포스 기능을 대규모 업데이트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매장 관리와 운영을 더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품질 예측 및 ABC 재고 관리 기능을 포함해 주목받고 있다. 이전 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3일, 7일, 14일 후 품질 위험을 예측해 알려주고, 매출액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상품을 등급별로 파악할 수 있는 ‘ABC 분석’ 기법을 지원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비맥스, 마침내

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광고심의필 2023-1659-00240] *2022년 24회/주최: 산업통상자원부/주관: 산업정책연구원 *허가사(제조자는 제조 의뢰자): (유)관동제약/판매사(주)녹십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좋은 규제는 혁신 촉진하는데... '가상자산 정책' 없는 한국

해외에 뒤처지는 한국 제도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이 없어 한국이 정책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홍콩·유럽·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현물 ETF, 법 제정 등으로 가상자산을 제도에 편입시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중이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제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별다른 정책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이 가

홍콩, 현물ETF 아시아 첫 승인
美·유럽·UAE 등 법제정 활발

국내 2021년 특금법後 정책 실종
22대 국회선 법안 이끌 인물 없어
외국 비해 제도편입 움직임 미비

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2단계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 법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이끌고 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를 이끌어갈 인물이 없어 보여, 원 구성이 끝나면 관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등 2단계 법이 지지부진해 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및 제도

미국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전통 자금 유입...비트코인 ATH 경신
홍콩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중 자금 유입 기대
EU(유럽연합)	2025년 미카(MiCA) 본격 시행...가상자산·사업자 정의한 포괄적 엄격법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VARA) 통해 시장 감독 및 산업 적극 육성
한국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시행 예정...산업 육성은 2단계 법에서 방향성 맞지만, 산업 환경 말하기엔 '시기상조' 평가 나오는 상황

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지만,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운동 기간에도 가상자산이 크게 부각된 바가 없었던 만큼, 국회에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선 가상자산 현물 ETF가 점차 활성화되고, 관련 제도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전통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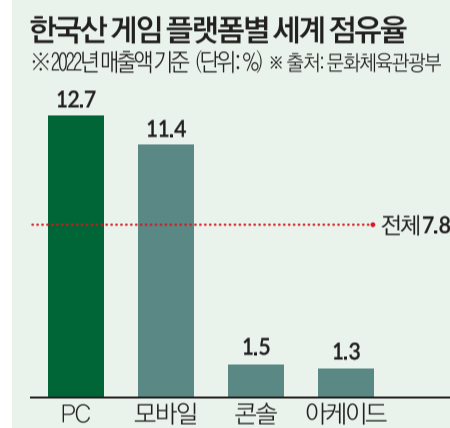
융 자금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물 ETF의 파급력으로 비트코인은 올해 3월 28개월 만에 신고가(ATH)를 달성하기도 했다.

홍콩도 지난달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초로 승인했다. 거래 개시 첫날인 지난달 30일 총 1243만 달러가 거래되며, 미국의 첫날 거래량(약 46억 달러)과 비교했을 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시장 규모를 따진다면 이는 큰 성

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홍콩이 아시아, 특히 중화권 자금의 유입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과 UAE도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낸스가 지난달 29일 진행한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비살 사철티란 바이낸스 시장 책임자는 "좋은 규제는 시장 혁신을 촉진한다"면서 유럽과 UAE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의 미카(MiCA)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실제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 규율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UAE는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VARA)을 중심으로 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업계 환경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다"고 말해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이들 국가에 비해 미비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비전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

목표 K-게임매출 30조 원, K-게임수출 120억 달러, K-게임 일자리 9.5만 명

3대 추진 전략 및 과제

콘솔게임 및 인디게임 집중 육성	규제혁신 및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
MS,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 인디게임 창업 지원 환경 조성	시간 선택제 자율 규제로 전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센터 신설	지역 연고제·학생 e스포츠 강화, 시계적 게임 기업·교육기관 교류

“콘솔게임 집중 육성... 글로벌 점유율 5%로”

게임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정부가 2028년까지 게임 매출 30조 원, 게임 수출액 120억 달러(16조 6200억 원), 게임 종사자 9만 5000명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저변 확대를 주요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병국 문체부 제1차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중정부 네트워크 등 통상협력 강화
e스포츠 지역연고 실업팀도 창단
게임사 제작비 세액공제는 빠져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이를 통해 현재 1.5%에 불과한 콘솔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중국 시장은 국내 게임 최대 수출국이나 게임 유통 허거진 판호 발급의 불확실성 등 외산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시장 진출에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중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가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차관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장관급 또는 국장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상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뉴델리에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게임 시간간택제와 같이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산업 경영환경도 개선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스포츠 중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e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단,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이번 진흥책에서 빠져들었다. 전 차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글로벌 영토 확장 '엔씨' 공동대표 '원팀' 시험대에

게임개발 역량 강화로 세계진출 속도
PC·콘솔게임 중심 북미·유럽 공략



김택진(왼쪽)·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한 엔씨소프트가 올해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는 2024년을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원팀(One Team)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게임 개발과 사업에 주력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 강화를 주도하고 박 대표는 경영 내실화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한창이다.

엔씨가 북미·유럽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 게임산업 시장 조사 기업 '뉴주(NEWZOO)'에 따르면 미국 게임 시장은 연간 648조 원 규모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게임 인구도 2억 명 이상으로, 시장 규모와 게임인구 모두 국내의 6배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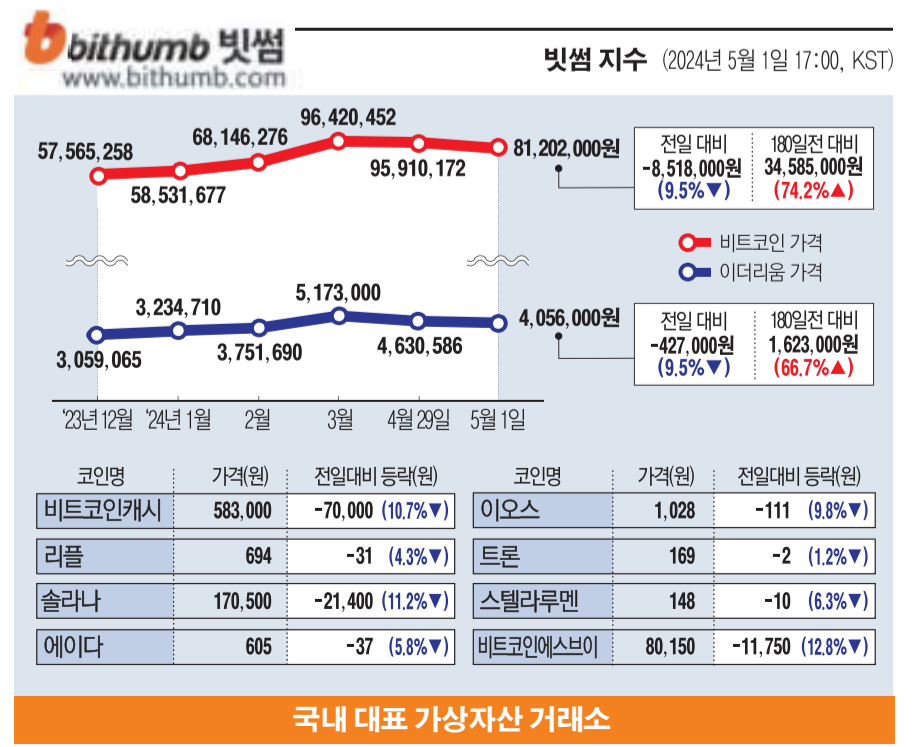
엔씨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북미·유럽 지역의 선호도에 맞춰 PC, 콘솔 플랫폼을 중심

으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기대작은 아마존게임즈와 함께 준비 중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쓰론 앤 리버티(TL)다. TL 외에도 엔씨는 올 상반기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판호를 받은 '블레이드&소울2'의 현지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원작 PC게임 '블레이드 & 소울'의 성과를 잇는다는 계획이다.

엔씨는 중국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협력사와 함께 다양한 게임의 판호 발급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더욱 활발한 협력을 예고한 만큼, 블소2의 출시가 중국 시장 진출의 발판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기자 nari34@



규제 적은 헬스케어 산업... PEF 인수합병 新타깃 부상

兆단위 빅딜 줄이어

국내 사모펀드가 헬스케어 산업에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에겐 성장성이 큰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투자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하며 '빅딜'이 성사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 목적이다. 경영권 인수 후 짧게 3년, 길게 5년 안에 매각해 수익을 낸다.

최근 나온 빅딜은 MBK파트너스의 지오영 인수다. 지난달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보유한 조선해지외이홀딩스 지분 71.2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1조95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은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 점유율 1위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4386억 원, 영업이익은 869억 원에 달한다.

MBK 지난달 지오영 2兆 인수

작년엔 2.5兆 오스템임플란트 한앤컴퍼니는 루트로닉 1兆에

성장성 큰 헬스케어 산업 매력 리스크↓ 뷰티·덴탈 분야 '선호'

또 MBK파트너스 지난해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UCK파트너스(구 유니스캐피탈코리아)와 손잡아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 트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두 차례 공개매수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96.1%를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규모는 2조5000억 원이다. 이외에 구강스캐너 솔루션 기업 메디트를 2조4000억 원에 인수하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국내 피부미용 의기기 회사 루트로닉을 약 1조 원(9600



사모펀드의 국내 헬스케어 M&A

※출처: 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피인수기업	지오영	오스템임플란트	메디트	루트로닉
사업 분야	의약품 유통	임플란트	구강스캐너	피부 미용 의기기
인수금액 (원)	1조9500억	2조5000억	2조4000억	9600억

억 원)에 인수했고, 올해 1월 같은 분야의 미국 기업 사이노슈어 인수를 완료했다. 현재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이라는 이름으로 양사 간 합병을 추진 중이다.

추가 딜에도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사모펀드 맥쿼리PE는 제뉴원사이언스를 6200억 원에 인수했고, 한미약품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모펀드의 선호 업종은 뷰티·덴탈 산업이다. 헬스케어 중 성장성이 크고 리스크도 적어서다. 반면 제약·바이오는 규제 영향을 받고 리스크도 커 선호도가 높지

않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실적이 나는 뷰티·덴탈 헬스케어 기업에 관심을 갖는다. 제약은 규제 산업이고, 바이오는 실적이 없으니 투자자들이 경계한다. 뷰티·덴탈 의류기기에 더 관심 갖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 출신 투자 업계 관계자도 "뷰티·덴탈 분야가 실적이 나고 성장하고 있어 선호한다. 하지만 바이오는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이라 부담이 커 주저한다"고 진단했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하면 기업은 큰 변화를 맞는다. 사모펀드는 경영을 잘

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해, 비용을 줄이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한다. 상장폐지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오스템임플란트와 루트로닉 모두 자진 상장폐지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시하고 주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업의 가격이 매일 드러나 주식에 급락하고 딜에 영향을 준다. 비상장 기업은 이러한 점에서 자유롭고, 가격이 매일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할 수 있어 경영자로서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신약·건보급여 확대... 치열해진 유방암 치료제 시장

AZ, ADC 신약 '엔허투' 급여권 진입에 업계 긴장 MSD, 적응증 확대... 로슈 허셉틴, 특허만료 경쟁

글로벌 기업들이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항암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판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암 잡는 미사일'로 평가받는 항체약물복합체(ADC)가 유방암 치료제로 등장했고, 기존 항암제도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시도로 환자 접근성 높이기에 나섰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한창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아제네카가 개발한 ADC 신약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옥스테칸)'가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 2형(HER2) 양성 유방암·위암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해 경쟁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HER2 단백질의 과발현 여부에 따라 HER2 양성과 HER2 음성으로 구분된다. '엔허투'는 지난달 1일부터 국내에서 기존 약물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급여가 적용되면



기업	치료제명	유형	특징
아스트라제네카·다이아제네카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옥스테칸)	항체약물복합체(ADC)	FDA 모든 암종 적응증 확보
MSD	키트루다(팜보롤리주맙)	면역항암제	국내 면역항암제 중 적응증 최다 보유
로슈	허셉틴(트라스투주맙)	표적항암제	국내 HER2 양성 유방암 표준치료제

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수식을 얻었다. 해외에선 엔허투 적응증 확장이 진행 중이다. 유방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든 HER2 양성 고형암에 엔허투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앞으로 암종에 상관없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에게 엔허투를 쓸 수 있는 단 의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국내에서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성분명 카피바실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유방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넓혔다. 티

루캡정은 지난해 11월 FDA에서 AKT 억제제 계열 중 최초로 허가됐다.

MSD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팜보롤리주맙)'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 적응증을 추가한 이후 급여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키트루다는 현재 국내에서 유방암·폐암·식도암 등 16개 암종에서 29개 적응증을 확보해, 활용 범위가 가장 넓다. 2022년엔 고위험 조기삼중음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적응증을 추가했다.

다만, 최근 급여 확대는 불발됐다. 키트루다에 대해 조기삼중음성 유방암과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등

15개 적응증에 대해 작년 6월부터 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 심의위원회는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MSD가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로슈의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이 유방암 치료제 대표주자였다. 2000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유방암 표준 치료제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2017년부터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렸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허쥘'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삼페넵', 인도와 미국

기업이 공동 개발한 '오기브리' 등이 식약처 승인을 받고 시장에 진입했다.

관련 시장도 성장할 전망이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암종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형신약의약품개발사업에 따르면 세계 유방암 치료제 시장은 2028년까지 약 460억 달러(57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항암제 개발사 관계자는 "유방암은 환자가 워낙 많고 케이스가 다양해 미충족 수요가 상존하는 분야다. 기업들의 치료제 급여권 진입 및 신약 도입 시도가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성주 기자 hsj@

"미혼 유방암 늘어나는데... 미래 임신 위한 난자 동결 지원 없어"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세계유방암학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는 아기 낳을 생각 없는데요?"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가 진료실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난자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 돌아오는 답변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유방암 치료는 가임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관련한 상담과 기술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최근 세계유방암학술회에서 김 교수를 만나 국내 유방암 치료 환경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에 관해 물었다. 김 교수는 한국유방암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젊은 유방암' 환자 대상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같이 발병 원인으로 '명확한 한 가지'를 지목할 수 없다.

3명 중 2명 '호르몬 양성 유방암' 20~40대 가임기 젊은층에 불리 가임력 타격... 지원 턱없이 부족

다만 학계는 유방암 환자들의 연령대와 생활습관 변화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생활양식 전반의 서구화가 유방암 발병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선진국화된 아시아 국가들에서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젊을수록 고령층보다 건강 회복이 수월하다는 상식이 유방암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방암 환자 3명 중 2명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된

'호르몬 양성 유방암' 이어서다. 호르몬의 영향은 60세 이상 노인보다 20~40대에서 강하게 작용한다. 또 젊은층 환자들은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김 교수는 "젊은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월경이 시작되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치료 이후에도 재발 예방을 위해 호르몬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방암 치료에 돌입하기에 앞서 환자들은 향후 임신·출산을 위해 난자를 동결하는 선택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임력 문제와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환자 상담 및 교육 수고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는 환자가 큰 비용을 부담하며 미래를 대비해 난자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 했다.

김 교수는 유방암 환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가임력 보존 상담과 교육을 제공했더니, 난자 동결을 선택하는 환자의 비율이 2%에서 약 22%까지 높아졌다. 환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한성주 기자 hsj@

이마트24, 신규 가맹점 '정률제'로... 적자탈출 시동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 이마트24가 고정 월 회비(정액제) 방식에서 로열티(정률제) 방식으로 바꾸는 가맹모델 대수술에 나섰다. 자사 대형마트(이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 통합 등 유통채널 재편 속 수익성을 높이고 점포 해지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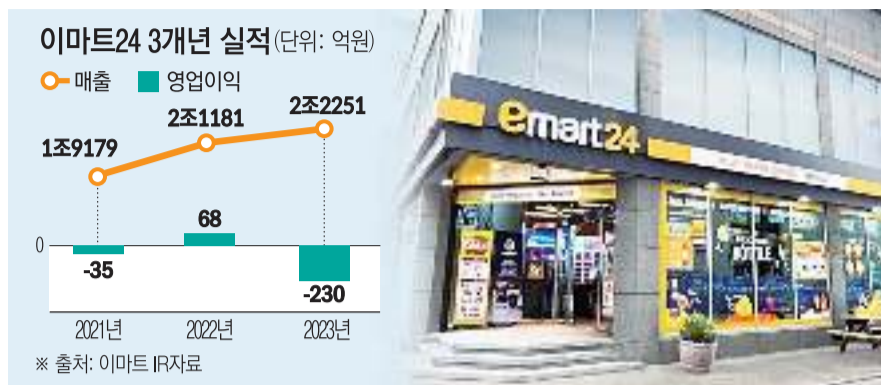
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지난달부터 신규 출점점포와 계약의 경우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해 적용 중이다. 월 전체 매출에서 가맹점과 본사가 71대 29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마트24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점포를 임차하고 고정 월 회비(65만~160만원)를 본사에 내는 정액제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워왔다.

편의점 위드미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은 2017년 이마트24로 브랜드명을 바꾸면서 '상생형 편의점'을 콘셉트로 3무(無) 정책(24시간 영업·로열티·중도 위약금)

작년 영업손실 230억원 기록 점포 해지율 방어·수익성 고려 기존 월회비 65만~160만원서 가맹점·본사 71:29 이익 배분

을 차별화 포인트로 부각시켰다.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가맹점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2022년 중도 위약금에 이어 로열티 방식까지 도입하면서 3무정책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

이마트24가 7년 만에 가맹점 모델을 대폭 손질한 배경은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는 2022년 68억원의 연간 흑자를 달성했으나 작년 23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과거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수혈했던 모기업 이마트도 추가 지원 여력이 없어 이마트24의 자체 수익성 확보가 절실한 상



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로열티방식 도입으로 이마트24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24는 그동안 가맹점에 월 회비를 받는 동시에 가맹점에 물건을 공급 시 마진을 붙이는 식으로 수익을 내왔다. 이는 가맹점 매출이 부진하더라도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업황이 좋을 경우 본사가 추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반면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은 가맹점 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

이익을 본사와 가맹점이 나누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점포 월 매출이 높을 경우 본사 이익도 상승한다.

일각에서는 이마트24의 기존 방식이 점포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점포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을 점주가 모두 가져가는 정액제 특성상 매출 상승 시 점주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지만 매출이 부진할 경우 점주의 손실 부담이 더 크다. 특히 일일발주를 해야 하는 이마트24 구조 특성상 유동성이 악화

된 저매출 점포 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마트24의 점포 계약 해지율이 유독 타 경쟁사보다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마트24의 가맹점 계약해지율은 7.5%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경쟁업체의 평균 계약해지율이 2~3%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마트24는 이번 가맹 모델 전환과 함께 노브랜드 상품 약 400여 개를 판매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차원으로 경영주의 이익 배분율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높은 인지도와 충성고객을 확보한 노브랜드 상품이 가맹점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이커머스 업계 '쇼트폼 전성시대'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15초에서 1분 내외 짧은 영상인 쇼트폼(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고객 눈길 끌기에 나서고 있다. 일상생활 팁이나 트렌드 정보 등을 담은 영상으로 소비자를 유입시켜 자연스럽게 상품 구입과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의 숏폼 쇼핑콘텐츠 서비스 '플레이(PLAY)' 영상의 누적 조회 수가 1600만 회를 돌파했다. 올해 1월 말 론칭 이후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다.

플레이는 제품 사용 후기, 추천 상품, 활용법 등 쇼핑 관련 정보와 여행, 생활 팁 등 다양한 숏폼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론칭 당시 1500여 개였던 영상 수는 두 배 늘어난 3000여 개에 이른다. 11번가는 영상을 보던 시청자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바로 클릭해 구매할 수 있도록 영상과 상품 상세 페이지를 연결시키고 판매자들이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숏폼 제작 지원에 나서고 있다.

SSG닷컴도 프로모션 상품과 숏폼 콘텐츠를 결합한 쇼핑 영상 큐레이션 서비스 '썬비비(SSG.TV)'를 선보이고 있다. SSG닷컴이 운영 중인 콘텐츠는 총 여섯 가지로, 고객의 관심도가

이커머스 쇼트폼 콘텐츠 연계 판매 성과



15초~1분 내외 짧은 영상 콘텐츠 11번가·SSG·티몬 등 운영 계속 '짧은 영상 인기'에 구매로 이어져

높은 최신 트렌드나 재미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최신 유행 중인 패션, 뷰티 상품을 숏폼으로 보여주는 '포즈', 유명산지 신선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 '신선직송' 콘텐츠 등이 있다.

티몬은 숏폼 콘텐츠와 개방형 라이브를 아우르는 미디어커머스 브랜드 '티몬플레이'를 운영 중이다. 유튜브형 영상과 숏폼 형태의 콘텐츠로 상품 언박싱이나 생활 정보, 쇼핑 팁을 소개한다.

이커머스업계가 이처럼 숏폼 콘텐츠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고객 유입'과 '연계 매출 증가' 등 1석2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1번가 오리지

널 셀러 '은영이떡볶이'는 떡볶이 조리 과정 숏폼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3월 밀키트 판매량이 전월보다 18% 이상 늘었다.

오리지널 셀러 '로진' 역시 숏폼 시작 직후인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식기건조대제품 거래액이 직전 2주보다 154% 이상 급증했다. SSG닷컴이 4월 1일 공개한 '이달의미식 Explore편' 관련 상품 매출도 전주 대비 17배 늘었다. 티몬이 올해 1월 진행한 '이디야커피' 프로모션에서는 숏폼 시청 후 구매까지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즐겨찾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커머스 역시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 유입과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누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50살 GS더프레시, 500호점 돌파 눈앞

작년 매출 규모 1조4476억 누적 1억7000만명 점포 찾아

창립 50주년을 맞은 GS더프레시가 500호점 돌파를 눈앞에 뒀다.

GS더프레시는 1974년 럭키슈퍼체인으로 출발한 이후 운영 점포 수가 469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총 1조4476억 원이다. 지난 50년간 누적 1억7000만 명이 점포를 찾았다.

GS더프레시는 가맹점주와 동반 성장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실제 지점 3곳 중 2곳(76%, 357점)은 가맹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GS25의 사업 노하우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접목시킨 결과로, 올해 7월 중 500호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GS더프레시가 업계 1위로 자리잡은 배경에는 △점포 영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SSM에 최적화된 체인 오픈레이션 도입 △우리동네GS앱, 요기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의 시너지 △전국 우수산지 MOU를 통한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 독점 공급 등 최적화된



GS더프레시 50주년을 기념해 점포 앞에서 직원들이 50주년 홍보물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GS더프레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GS더프레시는 50주년을 기념해 △창립 기념 기획상품 출시 △1억 원 규모 경품 행사 △5월 5대품목할인 △90여 기획상품 출시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호 GS리테일 슈퍼사업부장(전무)은 "GS더프레시가 대한민국 대표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큰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고객, 가맹경영주, 파트너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GS더프레시가 대한민국 근거리 쇼핑 최강자로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탄소배출 절반으로... 크라운제과, 친환경 新아산공장 본격 가동

크라운제과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최신 생산기술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과자 공장을 완공했다. '조리품', '콘칠' 등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스낵 전문 공장으로 36년 만에 기존 아산 공장을 대체하는 신규 생산기지를 완성한 것이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에서 '신아산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운영담당 크라운해태그룹 회장, 윤석민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강훈식 국회의원, 박경귀 아산시장 등 내외귀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운영담당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크라운제과만의 노하우와 최신 기술력이 결합된 스낵전문공장 완공을 계기로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 힘찬 비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아산공장은 총 5만 2000㎡(1만 6000평) 규모로 공장 준공에만 6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20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크라운제과가 스낵 공장을 신축한 것은 1988년 이후 36년만이다. 공장 규모

가 기존(2만㎡)보다 2배 이상 커지면서 새로운 생산라인 증축도 가능해졌다.

신축 공장에서는 조리품과 콘칠·콘초·카라멜콘과 땅콩·츄러스 등 크라운제과 주력 스낵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연 최대 생산 능력은 2400억 원 규모다. 크라운제과는 신축공장 생산라인을 수직화해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또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실었다. 저녹스(NOx·질소산화물) 친환경 보일러를 통해 탄소발생량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

로 줄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최신 필터링 설비를 적용해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안전한 폐수만 배출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공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물류기지 역시 옛 공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건설됐다. 이곳에서는 최신 로봇장비를 활용해 제품 자동 적재와 포장 가능성이 있다.

신아산공장 인근에는 2022년 7월부터 가동 중인 해태제과 아산공장(1만 4000㎡·약 4300평)이 위치해 있다. 크라운해

태가 아산 소재 두 공장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다. 크라운해태는 이 곳을 중부권 생산·물류 거점으로 구축해 국내외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이번 아산공장 준공은 크라운제과의 새 도약을 이끌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력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신한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진옥동·함영주 “스타트업·벤처 지원 썬심입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한금융그룹 ‘퓨처스랩’ 10년째 866억 투자·270여건 협업 성과 올 32개 스타트업 선발 육성·협업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신한벤처투자 본사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웰컴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함영주(오른쪽)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인하대와 MOU “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앞장설 것” 예비 청년사업가 창업실무 교육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시작

올해 3기 프로그램은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했다. 3기 모집 과정으로 전국 30개 대학에서 선발되는 총 1500명의 청년창업가들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스타트업·벤처 지원에 적극 나서며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계열사 간 협업 전략을 이어가는 한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고용확대까지 동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전일 열린 신한 퓨처스랩의 웰컴데이에 참석해 “그룹의 혁신 의지와 스타트업의 눈부신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이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한 퓨처스랩은 신한금융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올해 10년 차를 맞았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신한벤처투자 본사에서 진행된 웰컴데이에 10기로 선발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한금융 그룹사 임직원들과 함께 프로그램 소개, 육성 계획 및 협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신한퓨처스랩은 초기 스타트업들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설계 지원 등을 통해 △누적 투자금액 866억 원 △협업 비즈니스 270여 건 △예비 유니콘 21개사 배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한금융은 △육성(맞춤 멘토링, 네트워킹 등) △협업(그룹사와 협업, 공동개발 등) 2개 트랙에서 총 32개 스타트업을 선발했다. 이번 10기에는 저출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스타트업들도 선발하는 등 다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지원을 계획 중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같은 날 인하대학교와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도와 지역에 특화된 건 강한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지원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하나금융과 각 지역의 대학교, 청년들이 하나가 돼 지역과 지방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을 시작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3기 프로그램도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 육성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가치 창출 사업이다. 올해로 3년째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관·학 협력 모델이다. 2022년 5개 권역 10개 대학교와 시작한 협업이 지난해 전국 30개교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누적 2050명의 예비 청년사업가들이 창업 실무 교육을 받았다. 총 217개 팀은 창업에 성공해 지역사회에 자리잡았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KB 이노베이션 허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과 신기술 영역에서도 스타트업과 적극 협력해 많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벤처기업)이 탄생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지원 전담 조직으로, 지난 10년간 ‘KB스타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255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2100억 원을 투자했다. KB금융 계열사와 312건의 협업도 추진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김범근 기자 nova@

‘흥행 마침표’ 찍은 HD현대마린... 청약 환불금 어디로 향할까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 HD현대마린솔루션이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자금 이동이 벌어졌다. CMA 잔고가 청약 증거금으로 사용된 탓이다. 시장에서는 증거금으로 사용된 대규모 자금이 환불되면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청약 환불금 불잡기에 한창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일반청약마지막날인 지난달 26일 CMA 잔액은 71조34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청약 첫날인 25일

(76조6229억 원)보다 5조 넘게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투자자들이 변동성 장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대기성 자금인 CMA 잔고가 증가세를 보이던 양상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5일 CMA 잔액은 82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때보다 11조 원 가까이 줄었다. HD현대마린솔루션도 상장을 앞두고 청약에 돌입하자 투자자 자금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대어급 공모주가 상장할 때면 CMA 등에서 청약 증거금으로 대거 빠져나가 ‘자금 블랙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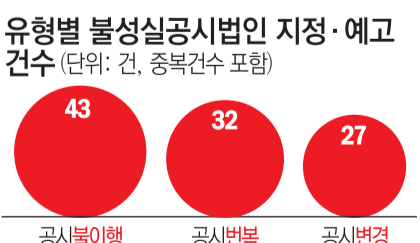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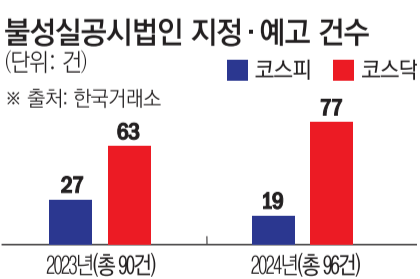
CMA 잔액 71조... 보름새 11조↓ 하반기도 SK에코·LG CNS ‘대어’ 증권가 “공모주 시장 재유입” 기대 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역대급 청약으로 손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상장할 때는 CMA 잔고가 22조 원 넘게 감소하기도 했다. 관건은 환불된 청약 증거금이다. 전날 HD현대마린솔루션 청약 배정에 따라 함께 증거금 환불이 진행됐다. 다만 투자자에게 돌아온 이 대규모 자금이 증

시대성 자금으로 남아 투자 ‘실탄’이 될지, 증시에서 유출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모주 투자가 활성화돼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하반기 SK에코플랜트와 LG CNS,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대어급 공모주가 등장할 것이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전날 기준 CMA 잔고는 71조 9000억 원으로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보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그쳤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며 증시를 떠나는 이들도 많아져 일각에서는 증시 자금 유출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도 환불된 청약 증거금 불잡기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부터 2일까지 공모주 청약 기념 특판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판매 중이다. KB증권도 ‘공모주 슈퍼워크’ 이벤트를 열고 공모주 청약 투자자에게 추첨을 통해 해외 주식 쿠폰을 제공하거나 공모주 배정에 성공한 투자자를 위한 특판 발행 여부를 준비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끝모를 돈가뭄에... 더 늘어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 96건... 1년새 6건↑ 코스피 상장사 줄고, 코스닥 늘어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 건수가 지난해 대비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지정예고된 건수는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19건, 코스닥은 77건으로 지난해 코스피 27건, 코스닥 63건 대비 코스피 상장사는 줄었으나 코스닥 상장사가 더 늘었다.

지정 사유별로는 공시불이행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반복 32건, 공시변경 27건 등이었다. 1개 기업이 여러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부 중복 반영될 수 있다. 공시불이행은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연 공시가 대부분이었다. 고려아연은 3월 18일 영풍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사실을 이틀 뒤인 3월 20일 공시해 4월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위니아는 2021년 9월, 2022년 7월에 해야 했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렬 정정 공시에 대한 지연공시 2건으로 4월 3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를 뜻하는 공시반복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철회와 더불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가 대다수였다. 플래스크는 3월 13일 공시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 2건과 전환사채발행을 3월 28일과 4월 9일에 철회했다고 정정공시했으며,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역시 3월 28일 해제했다고 밝히는 등 4건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열린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GOLD&WISE the FIRST) 반포’ 개점식에 참석한 양종희(앞줄 왼쪽 네 번째)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뒷줄 왼쪽 두 번째) KB국민은행 행장, 광고모델 이영애(앞줄 세 번째) 씨. 사진제공 KB금융그룹

KB금융, 프리미엄 PB센터 2호점 양종희 회장 “평생 금융파트너될 것”

KB금융그룹은 종합자산관리센터인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KB GOLD&WISE the FIRST)’ 반포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KB 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는 KB금융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인 ‘KB 골드앤와이즈’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양종희 회장은 전날 열린 개점식에서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이 중심이 되는 프리미엄 PB센터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광주·전남·전북)

'PF發 위기' 지방저축銀 덮쳤다... PF연체율 최고 13.8%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오르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 동기 4.3%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전년도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p 높아졌다.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6.4%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 3.5%·3.8%에 비해 4.1%p, 2.6%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도 최고 8.1% 찍어 고정이하여신비를 최고 10.2%

부동산 PF 대출 비중 늘린 영향

KB·대신·다올·애큐온 등 4곳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줄강등

연체율은 6.55%였다. 전년 대비 3.14%p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는 서울(6.0%)과 부산·울산·경남(6.4%)이 상쇄한 것으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방저축은행이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찍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역	연체율(%)	상승률(%p)
광주·전남·전북	8.1	3.8
대구·경북·강원	7.8	3.6
대전·충남·충북	7.8	3.6
경기·인천	7.6	4.1
부산·울산·경남	6.4	2.6
서울	6.0	2.8
전체	6.55	3.14

※ 출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이하여신비는 대구·경북·강원의 경우 10.2%까지 치솟았고, 경기·인천(8.8%), 광주·전남·전북(8.5%), 대전·충남·충북(8.4%)도 8%대로 치솟았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모바일뱅킹의 발달

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였고,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줄줄이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25일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15일에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로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부실 PF 정리에 나서줄 것을 저축은행 업계에 요구하고 있지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정리 실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인 추정 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유하영 기자 haha@

여전업계 “이달 중 PF정상화 펀드”... 저축銀은 2차펀드 확대

금융당국이 이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여신전문업계가 5월 중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상화 펀드 규모를 확대 조성을 발표한 데 이어 여신업권까지 동참하면서 재구조화 작업 촉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펀드는 웰컴저축은행 계열사인 웰컴자산운용과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열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운용한다.

펀드는 당초 800억~1000억원 규모로

캐피탈 10곳, 펀드 참여 의사 여신협회 “2000억 조성 계획”

저축은행 2차펀드 18곳 참여 1000억→1640억 대폭 확대

조성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예상보다 많은 저축은행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PF 정상화 펀드는 이달 초 운용에 돌입해 다음달 결산에는 펀드 운용 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2차 펀드는 1차 펀드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전체 PF 대출 규모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므로 2차 펀드 집행에 속도를 낸 이후 3, 4차 펀드

를 추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를 넘기게 되면 저축은행업계 부실채권으로 인한 연체율, 대손충당금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앙회에서) 2분기 전에 펀드 대부분을 소진해달라는 요청이 (운용사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는 캐피탈 10개사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전업권은 4월 중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PF 사업장의 사업성 문제로 일부 참여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펀드 조성이 다소 지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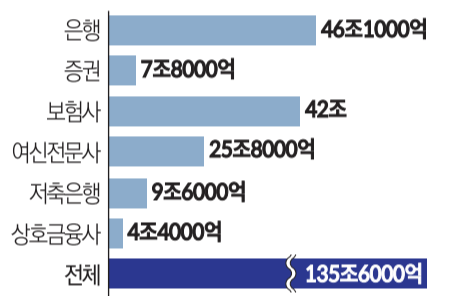
지난 1차 펀드 역시 사업성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를 주저하면서 조성

규모가 당초 26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 펀드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를 펀드에 출자하도록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워 경·공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전업권 펀드가 조성되면 후순위 사업자도 사업장 정리에서 손실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내놓으면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인 현행 사업성 평가를 ‘양호-보통-악화우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 (단위: 원)



회수이론’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부실이 늘어날 텐데 자체 펀드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해당 업권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美뉴욕·조지아 출장 떠나는 금융수장들

제57차 ADB 연차총회 참석차 글로벌 금융사들과 협력 모색 '밸류업 프로그램' 세일즈 동행

5월 금융권 수장들이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행선지는 뉴욕과 조지아로, 이들은 글로벌 금융권 동향을 살펴보고, 금융외교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필두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이날부터 조지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이달 2~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ADB 연차총회는 ADB 68개

국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금융계, 비정부단체(NGO)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상급 국제회의이다.

은행장들의 이번 출장 일정은 대부분 3~4일 일정이므로 알려졌다.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도 조지아행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기 위함이다. 특히 거래 관계에 있는 외국계금융기관과 면담을 통해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장들의 ADB총회 방면에 이어 금융지주 회장들은 미국 뉴욕으로 향한다. 이달 13~17일 예정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미국과 유럽 '밸류업 프로그램' 세일즈에 동행하는 것. 양총회 KB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선영 기자 moon@

신규계좌 한도제한 상향... ATM 하루 최대 100만원 송금

은행 창구선 300만원까지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도 모바일 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하루에 1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300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

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선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 뱅킹·ATM으로는 100만 원, 창구로는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는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유하영 기자 haha@



교통비 최대 53% 환급... "K-패스 잊지 말고 챙기세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부를 추가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1일부터 시작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하나·우리·BC카드 등 전업카드사 6곳은 K-패스 시행을 앞두고 혜택을 담은 K-패스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전일 출시했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도 포함되고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상원 기자 jsw@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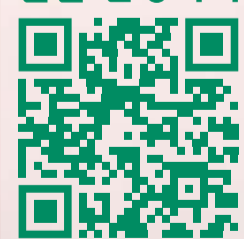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통화정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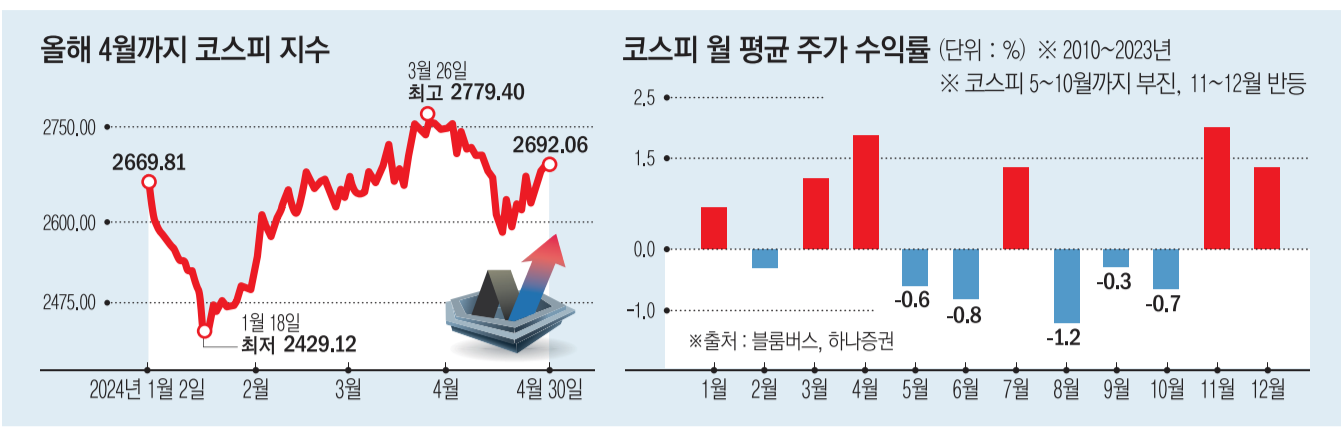
美 피벗 지연·반도체 숨고르기... '셀인메이' 현실화

5월 증시 전망 '부정적 기류'

오래된 증시 격언인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꾸준히 상승해 왔던 코스피지수가 4월 들어 꺾이기 시작하면서다. 2010년 이후 국내의 증시 월평균 주가 등락률만 보면 'Sell in May and Go Away'는 불패의 경험칙에 해당한다. 최근 14년(2010~2023년) 코스피지수의 5월 평균 수익률은 -0.6%다. S&P500지수도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 고금리 지속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3월에 반도체 수출이 과한 탓에 4월에 이어 5월에도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5월에 주식을 팔고 도망가라'라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피벗 지연' 우려...5월도 발목=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4월 한 달간 1.99% 하락했다. 2월(5.82%), 3월(3.95%) 이어가던 상승 흐름이 4월 들어 꺾인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4월 4.04% 하락했다. 외국인은 4월 코스피 시장에서 3조3727억 원 순매수했다.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 2월 7조8583억 원, 3월 4조4285억 원에서 점차 순매



10년만기 미국채금리 연 4.7% 5% 넘을 땐 증시 투자금 '썰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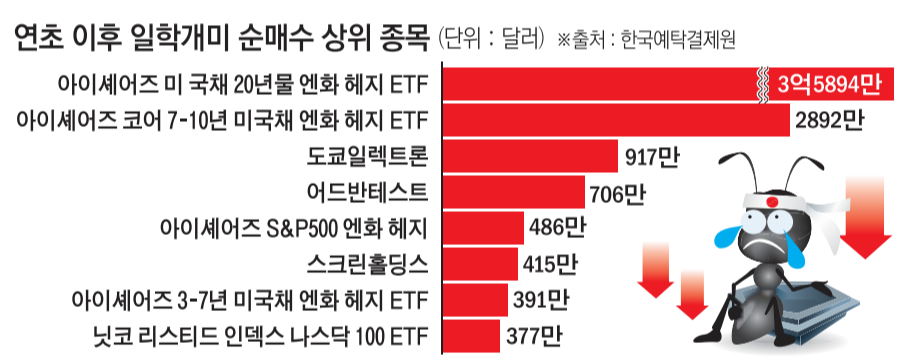
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달에만 9619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일단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부정적이다. 고유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고금리 영향이 달러강세-원화약세 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5일(현지시간) 연 4.708%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가를 갱신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담당 최고투자책임자(CIO)

릭 리더는 "금융시장의 연준 금리인하 기대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경제가 더 강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채권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일드갭(주식투자자와 채권투자자 간의 기대 수익률 차이)은 마이너스다. 굳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채권값 하락) 채권 대신 주식을 보유하느라 감수하는 위험의 대가가 작아진다. 작년 8~10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서 5%까지 상승하면서 S&P500지수와 코스피는 10% 이상의 가격 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 선언으로

중소형 종목·밸류업 기업 주목 S&P500, 유통·미디어 담아볼만 코스피, 헬스케어·은행 손꼽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 자산 매각 후 본국 송환) 리스크도 살아 있다. 엔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환류되면 국내 증시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코스피 하락폭은 평균 31.6%에 달했다. ◇반도체 '썰림 되돌림'...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눈치게임=1분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종목의 상승세 둔화도 우려된다. 3월 코스피 반도체 업종은 시장을 9.4%p 아웃퍼폼했다. 반면, 4월 반도체 수익률은 시장을 2.7%p 하회했다. 금리

가 올라 주식시장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잠정실적 발표로 재료가 소진된 영향 탓이다. 3월 반도체 수출이 과한 탓에 4월에 이어 5월에도 반도체 대형주가 쉬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상승할 방아쇠는 22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다. 5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인공지능(AI)의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반도체 주가가 피크아웃을 확인 후 주도주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주가 주춤해진 5월 증시에선 뚜렷하게 반등하는 섹터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조선, 건설 등 산업재가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지만 중동 분쟁과 유가 상승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김수연·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선택지에 올려둘 수 있는 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중소형 종목과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켈리티 주식"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만·박지원 하나증권 연구원은 "5월은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연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S&P500지수에서는 반도체, 유통, 미디어, 보험을,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헬스케어, 은행, 운송 업종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슈퍼엔저 쇼크... 일확개미 '비명'

엔화로 미국채 투자, 환손실 급증 심리적 저지선 155엔대도 뚫려 日정부 외환시장 개입 여부 관심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과 역대급 엔화 약세에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일확개미(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손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확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아이세어즈 미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순매수 규모는 3억5894만 달러에 달했다. 2위에는 아이세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 ETF(2892만 달러)가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엔화로 중장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뒤를 이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917만 달러) 순매수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두 종목은 채권 가격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며 인기를 끌었다. 통상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투자자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며 엔화가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점으로 떨어지며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초 이후 아이세어즈 미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는 13% 가까이 급락했다. 같은 기간 아이세어즈 코어 7-10년 미국채 엔화 헤지도 5%대 하락했다. 엔화는 지난달 29일 한때 달러당 158엔대를 기록했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155엔대가 뚫린 지 5일 만에 160엔대까지 무너지며 엔화 강세 기대는 연일 꺾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거론하며 연내 금리 인하 여부를 향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는 중이다. 한국판 아이세어즈 엔화 노출 미국 장기 채 상품에 투자한 동학개미의 수익률도 위협받고 있다. 올해 들어 KBSTAR 미국 30년국채엔화노출은 15%, ACE 미국 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는 12% 떨어졌다. 증권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여부가 엔화 가치 변동 흐름을 가능할 열쇠라고 보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50엔 중후반 수준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상품개발·운용보수 인하... TDF 노리는 운용사들

신역거리, TDF 2 자산운용사들이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차별화한 상품개발과 운용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최적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후의 왕좌에 누가 앉나 =현재 운용업계는 TDF 시장 선점 경쟁에 앞서 폭풍전야다. 아직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점한 자산운용사가 없는 만큼 TDF 시장 파이는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커져서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별 TDF 점유율은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37%) △삼성자산운용(18%) △KB자산운용(14%) △한국투자신탁운용(10%) △신한자산운용(9%) △키움투자자산운용(4%) △한화자산운용(2%) △NH아문디자산운용(2%) 등 순이다. ETF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순서지만, 시장 쏠림 현상은 달하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점유율 상위 2곳의 비중이 76%가 넘지만, TDF 점유율은 1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산운용사별 경쟁에서는 최근까지 KB자산운용이 가장 두터운 성장세를 보였다. 디폴트옵션이 시행된 지난해, TDF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리면서 본래 3위였던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넘어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수익률 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실제 설정액 10억 원 이상 TDF 상품 중 1년 수익률 상위 20위 상품의 수익률을 분석하면, 이중 80%(16개)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 중인 TDF다. 후순위에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TDF 시장 선점을 두고 각자의 전략을 통해 앞다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는 활발한 TDF 운용을 위해 해외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하는 사례도 많다. 연금 선진국인 미국에서 TDF 상품을 오래

1위 미래 제외 점유율 각축 KB 약진... 한투 수익률 강점 한화·NH 해외 운용사 협력

상당수 해외 운용사 재판매 국내 운용사 자체 개발 필요

운용해 온 해외 기관과 협업하며 그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TDF에서 글로벌 자산배분은 상품의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이며, 국가별, 섹터별, 기업별 글로벌 리서치 능력이 필수"라며 "이 분야의 세계 선두급 하우스인 JP모건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특화된 글라이드패스를 공동 개발한 뒤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축 시 JP모건과의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하나

로TDF는 올스프링의 자문 아래, 가입자의 은퇴 이후 TDF 및 주 연금을 합쳐 85세까지 은퇴 전 소득의 60%를 대체하게 설계됐다"며 "퇴직연금 명가 올스프링과의 협력과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투자 인프라 활용으로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창출해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축적해 갈 것"이라고 했다. ◇갈 길 먼 TDF 시장=자산운용사들은 특히 TDF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TDF는 목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로, 연금 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는 까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예·적금 금리도 높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TDF로 향하고 있다"면서 "당장 '머니부브' 현상이 뚜렷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트랙레코드(투자 실적)이 쌓인다면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 자본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이라고 말했다. 다만 TDF가 퇴직연금 상품의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 중인 TDF 상당수는 해외 자산운용사 상품을 들여와 재판매하는 구조"라며 "운용사들이 자체 개발하고 운용하는 역량을 키워야 보수도 낮추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바닥이 기회?... 부동산 매수, 다주택·무주택자가 '쌍끌이'

아파트 등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3개월 연속 올라 3년 만에 최고

올해 1분기 생애 첫 부동산 구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

다주택 세제 완화·신생아 특례 집값 바닥론 확산...구매 행렬

전국다주택자비율이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등 수도권 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하자 다주택자 매수가 이어진 것이다. 1분기 무주택자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도 전년 대비 상승세가 계속되는 등 '집값 바닥론' 확산에 투자와 실수요 모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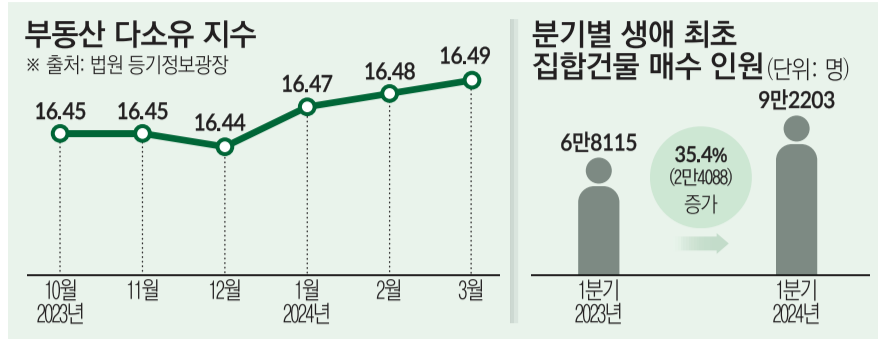
1일 법원 등기정보포장장 통계 분석 결과 올해 3월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49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16.49) 기록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다소유 지수가 증가할 수록 집합건물을 두 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월 다주택자 비율이 늘어난 것은 반년만이다. 이 지수는 1월 16.47을 시작으로 2월 16.48 등 매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다주택자 비율은 부동산 경기상승기에 주로 늘어난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팔랐던 2022년 1월에는 16.13으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집값 회복세와 함께 우상향 중이다.

여기에 올해 1분기 다주택자 증가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포장장 통

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유권이전(매매) 부동산 증가율 상위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와 대구 동구·중구, 부산 영도구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3월 기준 2751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고돼 지난해 3월 700건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대구 동구는 535건에서 1821건, 대구 중구는 465건에서 1512건으로 각각 3~4 배가량 부동산 매매 건수가 급증했다. 인천과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 가구가 많

은 지역들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매수세 확대와 함께 무주택자의 부동산 매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생애 첫 부동산 구입' 인원은 전국 기준으로 총 9만2203명으로 지난해 1분기 6만8115명 대비 35.4% (2만4088명)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10만1805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모양새지만,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 올해 계속 시행되자 무주택자의 첫 집 구매 행렬이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국 기준으로 규제 지역도 거의 다해제된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한 터라 지금이 투자하기 관측은 시기로 보인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투자 관점에서 신축이나 준신축 단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건설사 1분기 실적, 해외파만 웃었다

국내 건설사의 1분기 실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양호한 성적표를 내놨지만, 주택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들은 크게 뒷걸음질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분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현대건설의 매출액은 8조5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09억 원으로 44.6% 늘었다.

특히 해외 매출이 2조3210억 원에서 3조955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서 46.3%로 높아졌다.

현대건설은 주택 부문의 탄탄한 실적과 함께 사한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 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주 성과 삼성·현대 두 업체만 영업이익 증가 국내 주택사업 의존 높은 GS·포스코 등 '마이너스'

삼성물산도 두드러진 실적을 내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5840억 원, 3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4%, 15.4% 증가했다. 삼성물산도 해외 매출이 2조5450억 원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 평택 마갑 공사 등이 반영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 UAE 발전소 화재에 따른 총당금 반영 기저효과와 기존 프로젝트의 수행 안정성 유지로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상반된 모

습을 보였다. GS건설은 1분기 매출액이 3조7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6% 감소했다. 매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액이 2조7670억 원에서 2조3870억 원으로 13.7% 축소됐고 신사업과 플랜트, 인프라 부문도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590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55.3% 줄었다.

포스코인앤씨는 매출액이 2조4530억 원으로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40억 원으로 38.2% 감소했다. 국내 아파트 사업의 자재비 상승으로 건축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한 게 주요 원인이다.

대우건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4873억 원, 11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35% 감소했다. 삼성 E&A와 HDC현대산업개발도 실적이 악화했다. 삼성 E&A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조3847억 원, 2093억 원으로 각각 5.9%, 7.1% 감소했다. 전보규 기자 jbk@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상업기능 강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정 가결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역세권일대는 용도·밀도 계획을 수립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미대서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폐지와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현동 부지는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입지한 중심지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이권회기증관(가칭)과 시민 모두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제공, 시민 누구나 도심을 거닐며 쉬고 문화를 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제공 서울시

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계획과 밀도 계획을 마련해 상업·문화기능을 활성화하고, 광역중심으로서의 위상 및 G밸리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생활권을 더욱 활기있게 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삼성물산, 원베일리 놀이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삼성물산건설부문(삼성물산)이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의조경 공간 '애니타임' 놀이터 작품으로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원베일리의 애니타임 놀이터(사진)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놀이터의 동선마다 지붕을 설치해 더운 날에는 그늘이 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붕에는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의 패널이 있어, 바닥에 비치는 형형색색의 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통로와 휴게공간 등 곳곳에 쿨미스트 시스템을 설치해 더운 날 놀이터의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놀이 요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했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엠디엠



이렇게 날씨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한 점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주요 심사기준인 혁신성·기능성·형태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인숙 삼성물산 주택사업팀장(상무)은 "앞으로도 래미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je@·사진제공 삼성물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인구감소지역만 공급 허용

'수도권 실버주택' 희소성 더 커진다

수도권 일대의 실버주택 공급 부족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버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수도권은 사실상 이런 정책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1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실버주택 확대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공급이 허용

되면서 발표 직후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현재 공급 중인 수도권 실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급 중인 대표적인 수도권 실버주택은 경기도 의왕 백운밸리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스위트'(사진 투시도)가 있다. 리조트급 휴양시설과 커뮤니티를 도입했으며 현재 1단지 325가구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 곳은 전담 영양사가 준비하는 건강식이 제공되고 청소와 분리수거를 책임지는 하우스키핑, 각종 예약 등 비서 역할을 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25m, 3레



인), 실외 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스쿠린 15석, 스쿠림 5실), 피트니스(약 220평), 호텔식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도입된다.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 시설도 갖춰진다.

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책정했고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갱신을 포함해 최대 4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중도금 총 60% 중 50%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엠디엠

헌재 “민증 신청 때 열 손가락 지문 찍기는 합헌”

〈주민등록증〉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심판 청구 “지문 날인과 범죄 수사 목적 활용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4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날인돼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

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5년 5월의 선례를 유지했다.

또 “지문정보는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2015년 결정을 인용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4월 김모 씨와 강모 씨 2명이 청구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지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기 각 의견을 냈다.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1인이 반대 의견을 내 기각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로 보내도록 한 규칙

조항’에 관해서는 기각 2인, 인용 4인, 각 하 3인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못 쉬고 일한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받을 수 있어요’



근로수당 미지급엔 징역·벌금형 공무원은 유급 휴일 해당 안돼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통친 셈이다.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게 아닌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지 않는다.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줬고, 지난해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5, 6월 중 하루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하루치 임금·수당(100%)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쉬면 임금 삭감 없이 총 월급을 받고, 출근한다면 위하루치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쉬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임금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하루분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구름 인파 몰린 세계노동절 대회 노동절인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4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서울대공원 새 식구 된다

몸은 곰, 코는 코끼리 닮아 아마존 육상 포유류 동물 올해 안에 만날 수 있을 듯



아메리카테이퍼의 모습. 자료제공 서울대공원

앞으로 서울대공원에서 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암컷·수컷 각각 1마리씩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메리카테이퍼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국내 도입 시에는 서울대공원이 단독으로 보유하게 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대공원은 ‘아메리카테이퍼 구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아메리카테이퍼는 몸은 곰,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 다리는 호랑이를 닮은 동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아마존 열대우림 및 강가 등지에 서식한다. 몸길이는 180~250cm 정도이나 5~10cm의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 특이한 생김새로도 유명하다. 또 아마존에

성을 갖춘 번식 가능 개체다. 이르면 올해 10월 31일 이후 납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업 수행 이후 서울대공원은 아메리카테이퍼를 국내에서는 단독 보유하게 된다. 공원 측은 이번 아메리카테이퍼를 들여오며 따라 대표 전시 종을 확보하고, 국내 아메리카테이퍼 단독 보유로 관람 효과를 상승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

아메리카테이퍼는 서울대공원 내 남미관 내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감안하면 국내 도입 이후 일정 기간의 적응기를 거친 후 짝짓기를 통해 2세 출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아메리카테이퍼를 들여오기 위한 계획 초기 단계”라며 “서울대공원 내 남미관에 전시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작년 서울대공원 내에서 우결핵이 퍼짐에 따라 당시 전시 중이던 아메리카테이퍼 4마리는 폐사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chaebi@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했다” 인정

첫 재판… “보복협박한 적은 없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

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보복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오 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하모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꽃 기자 pgot@

'30兆 잭팟'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도전장

한전, 경영위기 극복 '올인' 입사 4년차부터 '희망퇴직'

1200MW 이하 원전 최대 4기 건설 발주사 방문 최종 입찰서 제출 UAE 이후 15년 만에 수출 기대

한국수력원자력이 30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사(EDUII)를 직접 방문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 및 테플린 지역에 1200MW(메가와트) 이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는 향후 발주사 평가와 체코 정부 검토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주호(앞줄 왼쪽 세 번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사(EDUII)를 직접 방문해 입찰서를 제출한 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다니엘 베네쉬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가 최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

공하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에 APR1000 노형을 제안했다. 이 노형은 유럽사업자 협회로부터 지난해 3월 설계인증(EUR Certificate)을 취득해 원전 설계의 안전

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황 사장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은 국내 및 UAE 신규 원전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역량을 보여줬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2036년까지 신규 원전을 준공하겠다는 체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전 세계에서 최적의 공급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2016년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후 지속해서 체코 정·관계, 산업계, 학계 및 원전 건설 예정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체코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원전 예정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글로벌 봉사 활동을 벌여 지역의 탄탄한 지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한국전력공사가 인력 효율화를 위한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200조 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한전은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 외에 최대 1억100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의 하나로 내달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달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전 관계자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 원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위로금 최대한도를 1억1000만 원으로 정해두고,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의 50%를 지급하고, 조기퇴직이 가능한 근속 20년 미만의 직원들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6개월분인 조기퇴직금의 50~300%를 지급한다.

신청 인원이 희망퇴직 가능 재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 중심(80%)으로 시행하되, 급여 반납에 동참한 직원에 대한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전체 희망퇴직 인원의 20%를 근속연수 3년 이상(4년차)~ 20년 미만 직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퇴직 이외에 경영 체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남부발전-SK E&S, 풍력·태양광 사업 개발 '맞손'

지속가능 미래 에너지 보급 확대 안정적 전력공급·탄소 감축 기여

한국남부발전이 SK E&S와 손잡고 국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9일 서울 SK E&S 본사에서 SK E&S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재원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과 서건기 SK E&S 재생에너지사업부문장과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협약은 풍력과 태양광 사업의 공동개발로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이산화탄소



심재원(왼쪽 세 번째)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SK E&S 본사에서 서건기(두 번째) SK E&S 재생에너지사업부문장과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감축을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신

규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

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송전계통 확충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 각사가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발전 체제 전환과 미래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기후환경 변화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은 물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굴 등 사업모델 다각화에 앞장서고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8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69호(1975.5.1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호(2009.01.29.)로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 된 구산동 15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학교시설면적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이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작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4. 5. 2. ~ 2024. 5. 16.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5)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구산동 152-3 일원	12,059	감)447.7	11,61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75-69호 (1975.5.14.)	

2)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 완화	비 고		
		기정	변경				
30이하	4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시설결정면적 변경 - 12,059㎡ → 11,611.3㎡ 감)447.7㎡	지적현황측량결과를 반영한 학교시설면적 변경
		건폐율 변경 - 30% → 40%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서울구산초등학교 신축사업을 위한 건폐율 상향

라. 관련도서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마.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공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4-15호

여성가족부·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해당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 사업시행자 : 여성가족부·대구광역시
○ 보상업무 수행(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시행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고전동 일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면적 104,006㎡, 2021년 ~ 2027년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정보공개 → 알람정보 → 고시공고)
- 동구청 홈페이지 : https://dong.daegu.go.kr (소통참여 → 규정소식 → 공고/고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 (알람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소재지	보상 대상 토지소재
대구광역시 동구 고전동	2, 3-1, 3-2, 4, 5, 6, 7, 8, 9, 10, 10-2, 10-3, 10-4, 23-1, 24-1, 24-3, 55-1, 56, 57, 57-1, 58-1, 58-2, 59, 60, 61, 62, 64, 64-1, 64-2, 64-3, 67-1, 531(미분할), 532, 533, 537, 산기(미분할), 산8, 산8-1, 산8-2, 산8-4, 산10, 산13-1(미분할), 산14-1, 산17

- 상기 조서의 토지 등은 금번 보상대상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향후 측량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검토 및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5. 2.(목) ~ 2024. 5. 17.(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두류동)
☎ 053-650-7876 / FAX : 053-650-7875
● 대구광역시청 교육청소년년과 청소년정책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상기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24년 6월 - 7월
- 협의계약 : '24년 8월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보상대상 물건 및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협의회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 2인)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통지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결정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감정평가법인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6월 17일[월]까지) 감정평가법인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계산에서 제외)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지 소재지	면적(㎡)	평인	토지 소유자 주소	주주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서명)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법인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중종의 경우 서명 대신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우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7. 기타 사항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같습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 주소나 거주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공식송달을 갑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50-7876

2024. 5. 2.

대구광역시청 · 한국부동산원장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새벽의 모든' 미야케 쇼 감독 “다양한 사람의 존재 보여주고 싶어”

공황장애·월경전증후군 앓는 두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 서로 병 돌보는 사회적 소수자 연대의 가치 통한 일상 회복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새벽의 모든' 기자회견에서 미야케 쇼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에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마음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 아주 많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다.”

1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새벽의 모든' 기자회견에서 미야케 쇼 감독은 영화 제작 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PMS(월경 전 증후군)와 공황장애도 의학적인 명칭일 뿐”이라며 “(이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보통 사람 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른 사람이고 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다루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PMS를 겪고 있는 여자

를 연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건 영화에서 묘사되는 증상이 공황장애의 모든 것으로 보이지 않길 원했다”며 “공황장애를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하면서 비슷한 증상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미야케 쇼 감독의 특유의 섬세한 필치가 돋보인 영화”라며 “감독님은 현재 일본 영화계의 새로운 물결 주도하고 있다. 부드럽고 친밀한 감각으로 일상의 온도를 포착하는 이 신작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 소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이 영화는 16mm 필름으로 촬영돼 감독님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감각과 섬세한 빛의 활용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의 영화는 항상 일상적인 세계를 다루면서도 그 세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평했다.

회견 끝에 미야케 쇼 감독은 점점 사라지는 영화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영화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주영화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영화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이일에 애정을 갖고 계속하다 보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송석주 기자 ssp@

후지사와(카미시라이시 모네 분)와 공황장애가 있는 남자 아마조에(마츠무라 호쿠토 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둘은 교육용 현미경을 제작하는 '쿠리타 과학'이라는 회사에서 동료로 일하는 관계다. 처음에는 불화를 겪지만, 서로의 병을 돌보며 동료애를 쌓아 간다.

미야케 쇼 감독은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을 통해 이미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바 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미야케 쇼 감독은 장애와 병 등으로 힘들어하지만, 연대의 가치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연출 포인트에 관해 그는 “공황장애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평, 美서 징역 4개월 실행

돈세탁·사기혐의...초범 정상참작 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평(사진)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행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할 수준의 자금과 재정 능력, 인력을 갖고도 그러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36개월보다 훨씬 작았다.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서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실수의 심각성



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

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검찰과의 여러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3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었다. 자오 창업자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바이낸스 자본 약 90%를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영 기자 kodae0@

히태수 회장 “CEO부터 기술 이해 높여야”



히태수(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 GS 회장은 GS 그룹 사장단 및 DX 담당 임원들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방문해 AI 디지털 신기술이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는 사례를 살폈다. 사진제공 GS그룹

GS그룹, 美 시애틀 사장단회의 생성형 AI·디지털 혁신 주제로

GS그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시애틀에서 ‘GS 해외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히태수 회장을 비롯해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홍순기 ㈜GS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허운홍 GS건설 사장, 정찬수 GSEPS 사장, 김석환 GSE&R 사장, 이영환 GS글로벌 사장 등 주요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여했다. GS 해외 사장단 회의는 해외 신중 시장이나 선진 기술의 중심지에서 연 1회 GS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최고 회의체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AI 기술의 발전을 업무 생산성과 사업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장단부터 이를 직접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장단은 첫 방문지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찾아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일의 미래(Future of Work)’, ‘AI와 산업 혁신(AI use case in industry)’ 등을 주제로 현지 전문가와 토론을 벌였다. 이틀날에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AWS(아마존 웹 서비스)를 찾아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업무 혁

신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장단 회의는 이례적으로 주요 계열사의 디지털 전환(DX) 담당 임원도 동행했다. GS 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최고위층의 공감대가 협업의 실행으로 즉시 연결되게 하자는 의도가 담겼다.

사장단 회의에 앞서 히태수 회장은 “사업 환경이 크게 요동하고 있지만 움츠러들기만 하면 미래가 없다”며 “오히려 내부 인재를 키우고, 사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AI 기술은 인재들의 창의력과 사업적 잠재력을 증폭하는 힘”이라며 “최고 경영자부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사업 현장에서 자발적인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솔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S그룹은 히태수 회장 취임 이후 ‘디지털, 친환경을 통한 미래 성장’을 모토로 사업 환경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룹사 전반의 DX 현황을 점검하는 ‘AI 디지털 협의체’를 사장단 참여 수준으로 매 분기 개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사업 현장의 문제를 디지털 AI 기술을 접목해 해결하는 ‘52g(5pen 2nnovation GS) 캠프 프로젝트’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GS 관계자는 “이번 시애틀 해외 사장단 회의에서 디지털 AI를 주요 의제로 삼음에 따라 GS가 그동안 추진해 온 디지털 사업 혁신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viajreport@lune@

부품소재 기업 육성 힘쓴은 함태용 하나銀 초대 회장 별세

함태용 하나은행 초대 회장이 1일 오전 6시께 서울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함 회장은 기업 설립과 시설 확장에 필요한 장단기 자금을 빌려주던 민간은행인 장기신용은행에서 은행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재직 당시 ‘장은기술상’과 장은공익재단을 만들어 부품소재 업체 육성에 힘을 쏟았다.

대구 태생인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1956년 한국산업은행에 들어가 40여년 은행인 경력을 시작했다. 한국개발금융 부사장을 거쳐 1980년 장기신용은행으로 옮겨, 1982~1989년 은행장과 1989~1994년 회장을 지냈다. 1991년 장기신용은행의 자회사 한국투자금융이 ‘하나은행’으로 변신하면서 하나은행 초대 회장도 겸임했다.

장기은행은행장으로 있을 때 장은기술상을 만들어 기능공과 엔지니어를 포상했고, 이후 KIST와 함께 장업을 지원할 ‘한국과학기술진흥’을 설립했다. 1999년 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에 인수합병되기 전 1998년 장은공익재단을 발족시켰다.

2000년부터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소재부품 기술상’을 만들어 매년 후원하는 등 부품소재업체 육성에 힘을 쏟았다.

유족은 부인 홍순자 씨와 사이에 2남 1녀로 함윤근(건국대 경영학과 교수)·함이립·함호근(다니함회계법인 대표) 씨와 며느리 조재영·이수희 씨, 사위 이상호(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20분, 장지 일산 자하연. 02-2227-7550 정성원 기자 jsw@

부음

▲진용석 씨 별세, 김춘숙 씨 남편상, 진경화·동화(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주원 씨 부친상, 윤영실·김승혜 씨 시부상, 조윤호 씨 장인상 = 1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7호실, 발인 3일, 02-6986-4440

▲김재성 씨 별세, 김대용(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장자산지사 대표) 씨 부친상, 장미라(에니어린이치과의원 원장) 씨 시부상 = 30일, 서울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3일 오후 2시 45분, 02-351-4444

금융위, 두번째 女부이사관 탄생

금융위원회가 권유 이(사진) 부이사관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권유이 부이사관은 1977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권 부이사관은 형시 45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등을 거쳐며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등에서 업무를 맡았다. 이번 승진은 김연준 부이사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주택건설협회, 이병훈 상근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병훈(사진)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상근부회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국토부 택지개발과장, 건설산업과장, 동서남부내륙발전기획단 기획관 등을 지냈다. 2020년 10월부터는 HUG의 부사장(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전보규 기자 jbk@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모빌리티총괄과장 방현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안광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대곤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과장 민정기

마감 후

“꾼들의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회사를 수년째 운영 중인 한 대표이사는 이처럼 탄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맛에 폭 빠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꾀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한계기업들을 법정관리하는 법원이다.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회생절차 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법정관리가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거센 비판에 과거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조정보다는 혈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튼 것인데, 꾀들은 이 틈을 교묘히 노린 것이다.

주가 조작을 하던 기업사냥꾼들이 호랑이 굴을 제 발로 들어가는 대법합의를 보이는 것은 잘만 하면 노다지를 쫓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을 하나둘 견어내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꾀들의 먹잇감이 늘면서 꾀들 입장에서 쇼핑 환경이 좋아졌다. 안 그래도 꾀들을 걸러내기 힘든 상황에서 법원에 일까지 몰렸다. 회생 전문 법관들의 업무 과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들을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로 구분한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해 크다면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즉 회생으로 가게 된다. 반대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회생절차를 감당할 비용조차 딸 수 없는 회사들은 파산을 결정한다.

신흥시장을 개척한 꾀들의 수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종료한 기업의 새로운 인수자는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경영진을 표 대결로 밀어내고 경영권을 차지한다. 보통 여러 명이 투자편드나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실소유자를 특정하기 애매한 구조를 만든다. 이후 회사가 소유한 공장부지·본사 건물·기자재·생산재고 등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각자 지분율에 따라 나눠 먹는다. 소위 ‘떡튀’를 하는 셈이다.

최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처분자산이 남아있는 알짜 기업이지만,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진

중이 심화하면 올바른 새 주인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부산·광주·대구 등 지역 거점 도시에서 기업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 내 회생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실제로 법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엿본다.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걸러내는 게 공정질서 확립이란 공익 목표에 더 부합할 것이다. 꾀들의 장난질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생법원 확대가 시급한 또 다른 이유다. ekpark@

이투데이, 말투데이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명언

“단순함은 궁극의 세련미(Simple is the Ultimate Sophistication).”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과학자·기술자·사상가.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의해 완성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각·건축·토목·수학·과학·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재능을 보였다. 대표작품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452~1519.

☆ 고사성어 / 정공피륙(丁公被戮)

한(漢) 고조(高祖)가 초(楚)나라 장수 정공(丁公)을 죽여서 그의 불신(不臣)의 죄를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출전 사기(史記) 계포(季布傳). 항우(項羽)의 부하 장수이자 계포(季布)의 외숙부인 그가 유방(劉邦)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더 공격하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되돌아갔다. 그로 인해 살아난 유방이 후에 “그때 정공이 좀 더 나를 공격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항우의 실패는 없었을 것인데, 항우의 신하로서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으니 너는 불충한 놈이다”라며 죽였다.

☆ 시사상식 / 매매 보호 서비스(escrow)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전자상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역할을 해 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후 대금을 제삼자에게 보관하고, 판매자는 제삼자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한다. 구매자는 물품 확인 후 제삼자에게 물품의 도착 및 구매 여부를 알리고,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벽창호

‘벽창호(鵝鴨牛)’가 변한 말. ‘벽창’은 평안북도의 ‘벽동(碧潼)’과 ‘창성(昌城)’ 지명에서 한 자씩 따와 만든 말. 이 지역의 소가 크고 역에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살 연구소장



박승찬의
마·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中 전기차굴기에 美·EU 생존경쟁
징벌적 관세·법안 등 전방위 대응

작년 10월 독일 뮌헨 모빌리티 전시회부터 올해 3월 제네바 모터쇼와 최근 베이징 모터쇼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비야디·지리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전시관이다. 미국·독일·한국·일본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의 성장속도와 생산방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경영진과 연구원 1200명 규모의 출장단을 베이징 모터쇼에 파견한 것도 그런 이유다.

가성비와 디자인 경쟁력까지 구비한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시장 공습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드는 ‘전기차 캐즘(Chasm)’이 나타나면서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가격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은 미국과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중동·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 전기차 기업간 치킨게임 격화

비야디는 2030년까지 유럽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80만 대 목표 아래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판매대리점 개설을 시작으로 신규공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필두로 태국·인도·헝가리·브라질로 신규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규제 회피 목적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 또한 유럽공장 신설에 이어 멕시코 신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펑 전기차는 이집트·요르단·UAE 등 중동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판매대리점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글로벌화 배경은 크게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도 내수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태에서 점차 캐즘 현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23년 중국내 순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4.6%로 전년 66.8%에서 줄어들었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 증가율은 84.7%로 전년 138.4%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난립과 함께 화웨이·샤오미 등 대표적 혁신기업들이 전기차시장에 뛰어들면서 심각한 출혈가격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HSBC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이 400여 개에



지난달 25일 개막한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현대차관에 전시된 아이오닉 5 N. 뉴시스

달하고, 작년 한 해만 100여 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었다. 중국 기업데이터 조사기관인 ‘치차차(企查查)’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전기차 포함 신에너지차 관련 기업 수가 92만 개가 넘는다. 결국 중국 전기차 기업간 치킨게임이 본격화되자 글로벌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되자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 낮은 금액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특히,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성비 앞에 美 자동차 ‘멸종’ 우려

미국은 우회수단으로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가성비를 갖춘 중국산 전기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멸종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을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 굴기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중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USTR(무역대표부)과 USITC(국제무역위원회) 별도의 자동차 원산

지 규정의 경제평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3월 1일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다른 네트워킹 정보통신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의 안보위험 가능성을 조사중에 있다.

올해 들어 미 의회 차원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제재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생산지역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기업의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100% 인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자동차 산업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美, 산업보호 법안 등 대응 강화

한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 전기차 규제 목적의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첫째,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전기차도 중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보조금 관세혜택을 못 받게 하는 ‘자동차관세 허점 폐지법’, 둘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차(중국 내 생산 및 중국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생산·제조된 차량)에 대해 2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자동차 관세강화법’, 셋째 IRA 규정상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을 ‘북미 생산’에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기준 준수’로 수정하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보조금 법안’이다.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습이 가속화될수록 미·중 양국 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출혈경쟁과 미중 간 대립 속에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걸쳐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야디의 한국시장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장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일본 최고의 마천루 모리JP타워, 높이 330m로 2014년 세워진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300m)를 제쳤다. 1989년 재개발조합 설립 당시 64세였던 재개발 추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98세가 되어 준공식에 참석했다. 하나의 마을로 완성되고 다같이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성은 34년을 관통한 일념이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2000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

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

을 뿐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본의 증시는 지난 2월 22일 버블붕괴 후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효과를 거둔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발점은 2014년 발표된 ‘이토 보고서’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인센티브 -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

논현로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축 프로젝트’라는 긴 이름이 공식 명칭이다. 학계와 금융, 재계가 중심이 되어 1년에 걸쳐 논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지원 역할에 충신했다.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됐고 이를 무기로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확대 등에 소극적인 수밖에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바라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부양보다 계열사 확대를 통한 수익확대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20년이 넘는 숙성의 시간을 가진 일본의 증시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자 우리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했다. 기관투

자가들에게 밸류업 우수기업에 투자를 늘려달라 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주주에게도 세금면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대한 대책은 없고 통신투, 전기료, 은행 금리, 수수료 등 민간의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규제는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년 숙성된 와인에 1년짜리가 맛으로 도전하는 격이다.

10년이 넘게, 길게는 30년에 걸친 숙성의 시간을 가진 것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빠른 실행은 이런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드라마틱한 도심 재개발, 고령자 및 여성 취업의 증가, 발 빠른 이민 대책, 출생률 상승, 기업 실적의 개선, 증시의 활황 등 일본의 경제, 사회적 밸류업이 부럽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숙성의 시간이라 하겠다.

30년 공들여 추진...실적개선 성과

우리는 관치속에 흥내내기 급급해

멤질식 아닌 ‘숙성의 가치’ 깨닫길

한국인은 여전히 ‘명품 호갱’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국내 명품 시장은 세계 7위 규모에 달했고, 1인당 명품 소비 역시 세계 1위다. 명품 가격 인상설이 돌 때마다 유명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은 ‘오픈 런’으로 인산인해인 것만 봐도, 한국인의 명품 사랑을 실감할 수 있다. 심지어 매장에 없는 제품은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도 흔하다. 한국인이 ‘명품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명품업계 역시 경기불황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 현재 샤넬의 클래식 플랩백 스몰(미니) 사이즈는 1497만 원, 미디움·라지 사이즈는 각각 1557만 원, 1678만 원에 달한다. 에르메스의 버킨백, 켈리백 등은 높은 가격은 물론 구매제한까지 있어 돈이 있어도 가방을 쉽게 살 수 없는 지경이다.

그 덕에 세계 3대 명품 브랜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는 지난해 국내에서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냈다. 최근 급성장세인 디오르까지 더하면, 명품 브랜드 4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브랜드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꼽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명품 브랜드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어떨까. 많은 소비자는 명품

노트북 너머

김유연

생활경제부 기자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사후관리(AS)는 퇴보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명품 기업의 국내 기부금 규모도 낮은 수준이다. 디오르는 지난해 1920만 원의 기부금을 책정해 ‘핸드백 2개 값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에르메스의 기부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1.4% 줄어 5억 5300만 원에 그쳤다. 루이비통이나 펜디는 기부금 항목 자체가 ‘0’이다.

명품의 사전적 뜻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다. 그러나 최근 명품 브랜드가 보여준 배짱 영업과 수차례 가격 인상 정책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 기만’에 불과하다. 명품 기업의 배짱 영업과 횡포를 멈추려면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과시적 소비를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도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품 브랜드가 계속 생존하려면 소비자를 위한 ‘명품다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kyy0907@

사설

“우리가 왜 지켜주나”, 한국 직격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타임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고 한다. 전체 문맥을 보면 트럼프가 직접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트럼프가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타임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실제 관심사는 방위비 압박, 그에 따른 정치적 이득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로선 예상일이 아니다. 1기 때의 ‘트럼프 리스크’를 고스란히 다시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점부터 그렇다.

트럼프는 1기 시절 2019년의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의 당시 연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를 웃도는 6조9000억 원 규모의 증액 부담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이번 문답은 ‘어디로 튀지 모르는 럭비공’ 트럼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재등판할 공산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과거 분담금 협상을 소환하면서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면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 그런데 내가 이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적어도 동북아 지정학,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 1기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는 점이다. ‘가치 동맹’만 믿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왜 지켜주나”라는 안보관의 과격은 한반도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에 대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인터뷰에서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앞서 2월 국내 총생산(GDP) 2%를 국방비에 할애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겨냥해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공언해 물의를 빚었다. 그런데도 바뀐 것이 없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 발언은 더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유럽(지원 규모)이 같아지기 전에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대만 방위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 곳곳에 국제 지평학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숨어 있는 셈이다. 타임지는 특히 나토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갈이 아니었다”고 평했다. 한국 발언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보·경제 비상계획을 짜야 한다.

특허, 특!

KT&G의 ‘2조8000억’ 소송

KT&G의 퇴직 직원인 콰모 씨가 지난달 24일 대전 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소가만 무려 2조8000억 원으로 인지대만 대략 9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인지대가 부담되어서인지 우선 1000억 원만 일부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 원의 소가라도 인지대가 3억 원을 넘어서는데 소송비용은 특허소송을 지원하는 해외 펀딩을 통해 조달했다고 한다.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요구...인지대만 90억 원

이번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의아한 면이 많다. 우선 2조8000억 원이란 천문학적 소가이다. 1000억 원을 먼저 일부청구하긴 했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거의 3조 원을 청구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특허침해소송 및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이 큰 경우가 드물어 소송 추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만 소가를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외 펀딩을 통한 소송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펀딩을 통한 특허소송은 미국과 같이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비가 낮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침해배상액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 펀딩을 통해 본 소송이 진행되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인지대만 3억 원이 넘어가므로 변호사비까지 고려하면 콰모 씨 입장에서는 펀딩을 통한 소송 제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펀딩 업체에서도 사전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지원했

을 확률이 높는데 이 부분은 추후 소송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된 직무발명 보상액이 KT&G가 해외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점이다. 청구된 2조8000억



원은 KT&G가 해당 특허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등록한 경우의 매출액 84조9000억 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매출은 약 14조2000억 원이고 해외 매출액은 약 70조7000억 원이다. 회사가 경영적인 판단으로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경우, 해외 특허 미확보에 따른 매출액 손실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직무발명의 보상비용 등 법원판단 주목

기초 매출 8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청구된 소가가 2조8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직무발명의 기여율을 약 3.3%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내 매출액 14조2000억 원 기준 1%의 기여율이 인정된다면 약 1400억 원의 손해가, 0.1%의 기여율이 인정된다면 약 140억 원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인지대를 고려하더라도 기여율이 0.1% 이상 인정된다면 펀딩 업체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송 결과는 KT&G 제품에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실제 매출과 이익 이의 그리고 해외 특허 미확보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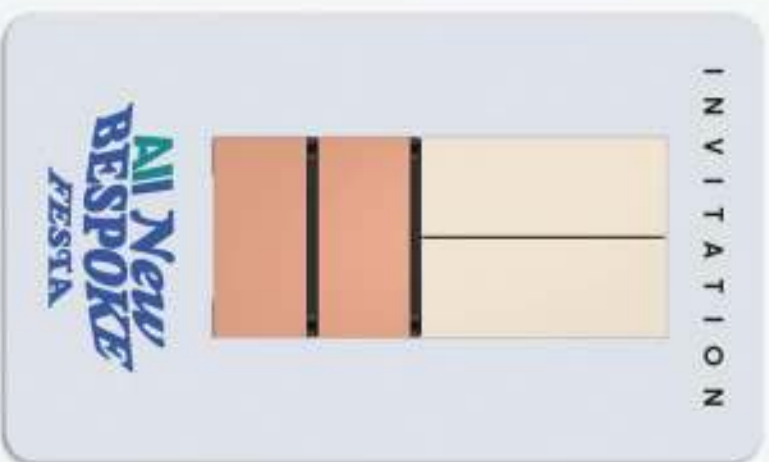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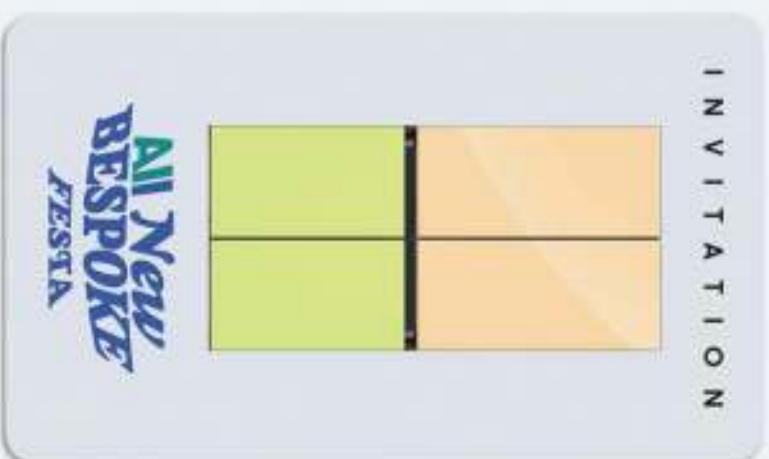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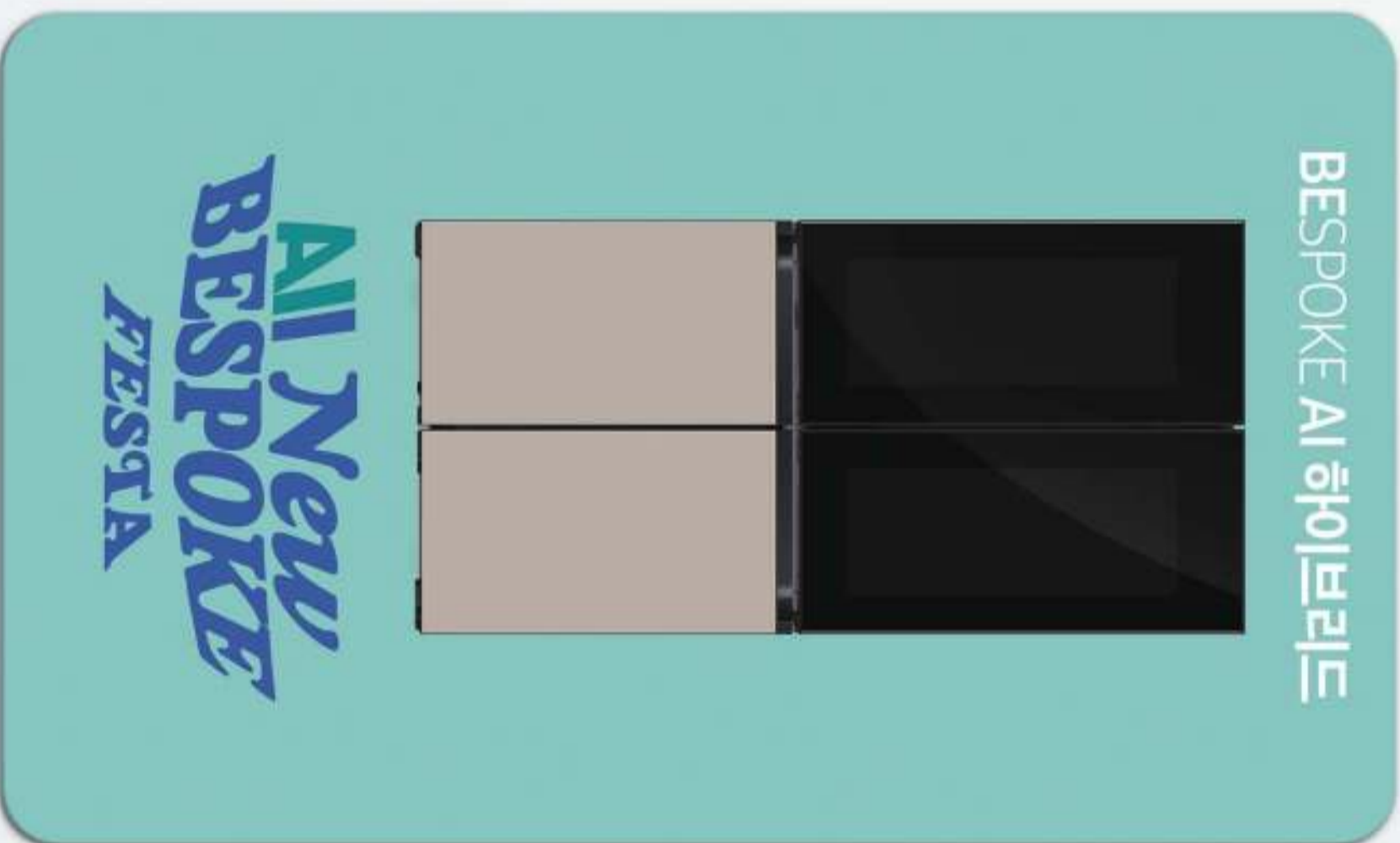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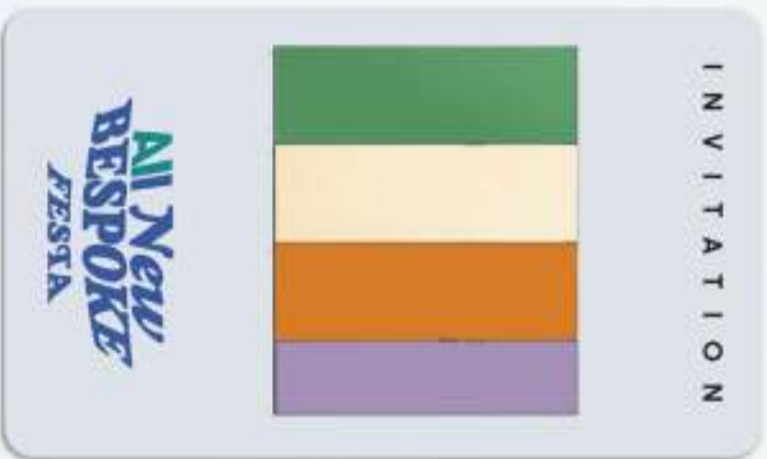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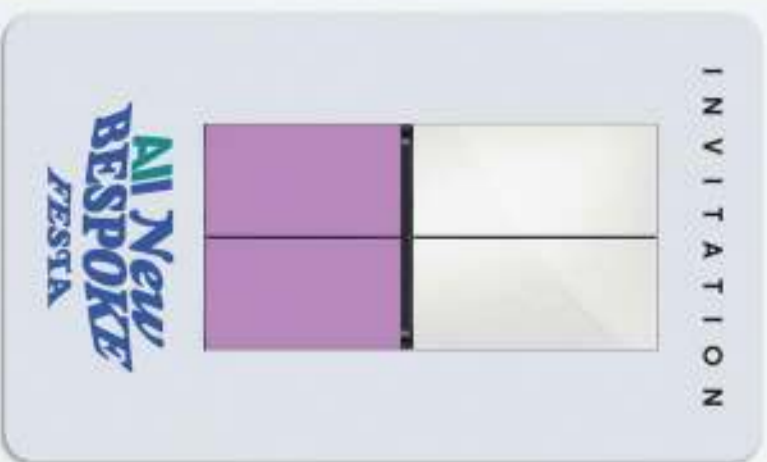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냉장고, 시를 만나다
 시가 알아서
 식재로 관리부터 레시피 제안,
 에너지 세이빙까지!
 시로 완전히 새로워진
 BESPOKE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4.3.14 - 5.31



EVENT 1 _____
 냉장고 구매 인증 시 총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
EVENT 2 _____
 호기 자극 시 추천을 통해 매일 1099에게
 에르테스 테이블웨어 전시 증정
EVENT 3 _____
 미팅에 드는 신규 기능을 SNS 공유 시 추천을 통해
 1,000명에게 스마트스 모바일 증정권 증정
EVENT 4 _____
 냉장고 신제품 견학은 구매 65일 내임. 코드스폰 증정
 *한글 키워드 (2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시를 만나 새로워진 BESPOKE 시 하이브리드



온도를 예측해 식재료를 항상 신선하고 빠르게 냉각
시 하이브리드 클링



시인버터 컴프레셔와 시하이브리드 클링으로 확실한 에너지 절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최저 기준 대비 30% 절감
 (R910B90LE 모델 기준)



동일 외관 대비 25L, 60mm 더 깊어진 선반
스페이스 맥스



타지하면 자동으로 문이 활짝
오토 오픈 도어

* 기능은 일부 모델 및 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연결된 이미지로 설명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구매 취소 시 계약받은 혜택은 반환해야 함. **시 하이브리드 클링** : 클링이 소지는 영내 공간이 전기냉동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반드레 소지임. * 클링이 소지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적용됨. -냉장실의 온도가 영하 범위 이상 올라갈 때 -사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매달을 분석, 5도부터 냉각실 온도를 예측하여 냉각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냉각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할 때. * **시 하이브리드 클링**의 적용 방식은 제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에너지 소비효율** : 동일 외관 대비 30% 절감. *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지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규격 인증 시 실측된 소비전력(Wh)을 바탕으로 계산. * 500L 용량 모델(R910B90LE) 기준 소비전력(Wh) : 33.0 kWh/년. * 해당 모델의 소비전력(Wh)을 기준으로 산출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최저 기준 대비 절감 : 47.23 kWh/년. **시인버터 컴프레셔** : 시인버터 컴프레셔의 사지 기능 활용을 위해서는 Wi-Fi 연결, SmartThings 앱을 이용으로 시 절감 모드 적용이 필요함. **스페이스 맥스** : 기존 선반 대비 깊이 60mm, 선반 최대 면적 약 13.8% 증가. * 동일 외관 대비 25L, 지시 용량과 R935C90N1A1 모델(R910B90LE)을 비교한 용량. **오토 오픈 도어** : 도어의 최대 열림 각도는 90도. * 해당 환경에 따라 열림 각도 및 열림 시간은 다를 수 있음. * 2024년 이후 출시된 BESPOKE 45도+ 제품 중 일부 모델에 한함.

세상에 없던
시 라이프